

Policy



ISSUE

2018
정책이슈리포트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U

E

REPORT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연구진

김도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박승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CONTENTS

I) 왜 행복정책인가

- 1. 내재적 선으로서 행복의 의미 04
- 2. 행복정책의 정당성과 행복지표 개발의 필요성 07

II) 지자체 행복지표 개발 사례의 검토

- 1. 국내 사례 :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12
- 2. 국외 사례 : 일본 구마모토현의 총행복량(AKH) 지수 44

III) 도민행복지표 체계의 개발

- 1. 분야 및 영역의 설정 54
- 2. 영역별 세부지표의 선정 59
- 3. 제주형 도민행복지표의 최종안 83

IV) 도민행복지표의 도정연계방안

- 1. 행복정책의 기본방향 88
- 2. 행복정책 연계방안 : 도민행복지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91



I) 왜 행복정책인가

1. 내재적 선으로서 행복의 의미

내재적 선과 외면적 선

- 공동체주의자의 대표적인 학자인 MackIntyre(1981)는 선(善)을 내재적 선(internal goods)과 외면적 선(external goods)으로 구분하여 설명
 - 내재적 선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반면, 외면적 선은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이 덜 가지게 되는 속성이 있어 승자와 패자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
 - * 공동체주의자들은 정치·사회적 윤리와 도덕의 기초로서 공동체를 지목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덕목을 강조하며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주의론적 모순을 비판하는 학자 그룹으로, Sandel(1982)이 Rawls(1971)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기 시작
 - * Rawls(1971)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의 원칙을 제시해 개인의 자유와 함께 사회적 평등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주장하였고, 이는 당시 학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
- 많은 학자들은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외면적 선을 경험하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설령 그것을 이룬다 해도 곧 싫증낸다는 점을 관찰
 - Brickman & Cambell(1971)은 경제성장을 했는데도 그만큼 행복이 향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쾌락의 쳇바퀴효과'(hedonic treadmill)라 명명하여 설명
 - 즉 사람들에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롭게 소유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한 기쁨은 감소한다는 논리

행복과 내재적 선

-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인간관계, 공동체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내재적 선을 경험할수록 삶의 질이 풍성해진다는 특징을 발견
 - 대표적으로 Diener & Biswas-Diener(2008)는 행복한 사람이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좋은 관계가 개인을 더 행복하게 해 준다고 주장
 - *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해지며, 이는 가깝고 의지할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을 의미
 - 누구든지 사회적 지원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 또한 극단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과 세상에 도움을 줄 때 개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더 행복해진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자신과 가정에서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훈련해야 함을 역설
 - * Emmons & McCullogh(2003)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적어도 다섯 가지씩 쓰게 한 결과, 감사의 글을 쓰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감과 긍정적인 감정, 자신감과 활력, 남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과 배려심 등이 높아졌음을 확인
 - * 노지혜·이민규(2011)도 일주일동안 매일 주변 사람들과 세상이나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쓰도록 한 실험집단과 단순히 그날의 경험을 쓰도록 한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인지적 안녕감과 자기존중감, 낙관성이 높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이 행복한 삶을 이끌고 유지하는 데 효과적임을 증명
 - Ben-Shahar(2014)는 성공한 경영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반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임원들은 경쟁이 두려워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
 - 신지은 등(2013)은 행복한 사람이 관계적 가치를 중시하고 타인 및 사회에의 높은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음을 청소년 집단을 통해 증명
 - Vaillant(2002)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지식이나 지위가 아닌 사회적 인간관계에 있음을 언급
 - Layard(2005)는 이기주의자에게 행복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지위보다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더 많은 가치를 두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

- 높은 소득이 행복의 원인이 아닌 결과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그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견지
 - 희생을 치르더라도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흔히 언급하는, 소득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통계상 더 행복하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현상을 역설적으로 설명
 - 실제로 Diener & Biswas-Diener(2008)는 행복하다고 말했던 대학 입학생들이 그렇지 않았던 입학생들보다 40대 때의 소득이 30% 더 높은 사실을 20여 년 후 추적 조사를 통해 증명
 - * 이들은 행복한 사람이 자기 일을 의미 있다고 느끼며 창조력을 발휘해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더 높은 소득을 받는 것으로 설명했는데, 이는 스스로 행복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덜 적대적이고 남을 더 사랑하고 잘 용서하며 잘 믿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라는 Myers(1992)의 연구와 연결되며 자신이 하는 일에 내적 동기와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구재선·서은국(201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
 - 행복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고 창조적이 된다는 점은 각각 Isen & Levin(1972)과 Isen et al.(1987)의 연구에서도 확인
 - Frey(2008)는 행복한 사람이 더 낙관적이고 사회생활을 잘하며 모험적이고 개인적 활동이나 경제적·사회적 활동 등의 측면에서 더욱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어,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모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언급
 - *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 많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로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
 - 신민희 등(2010)도 행복한 사람일수록 창의력, 독창성, 대안적 문제 해결 능력, 모험적 자유 추구 등이 높다는 사실을 실증 연구를 통해 증명

2. 행복정책의 정당성과 행복지표 개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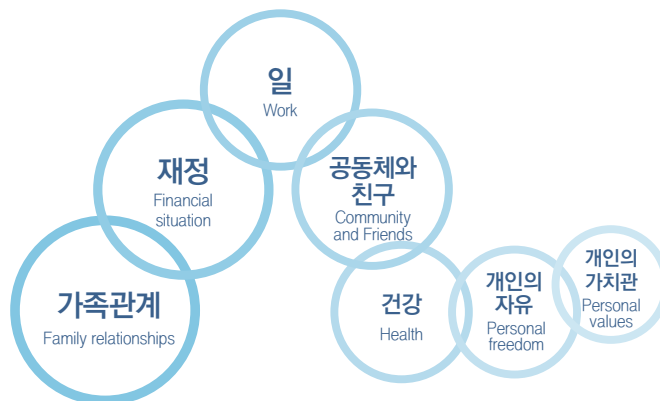
행복은 정책의 목표로서 정당인가

- 계몽주의 사상에 의하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최고의 선은 공동선으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보편적인 윤리관이 부재한 현대 사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개인 모두가 공헌할 수 있는 공동선의 개념이 요청(Layard, 2005)
 - 그렇지만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늘 옳지만은 않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행복 연구에 기초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 제기(우창빈, 2013; Bok, 2010)
 - * Lane(2000)은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Kahneman & Thaler(2006)는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Loewenstein & Ubel(2008)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
 - 행복 연구는 사람들이 각자 삶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어떤 제도들이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지침 제공(Frey, 2008)
- Layard(2005)는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의 행복 향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
 -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추구할 만한 목표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천인 가정에서, 직장에서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
 - * 사회 전반에 걸쳐 강화되고 있는 경쟁의 환경을 문제로 삼으면서 사회적 지위를 위한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므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어려움을 주장(Layard, 2005; 2006)
 - *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사회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하며 소득이 늘어나도 행복해지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이정전, 2008; Frank, 1985; 2010; 2011; Frank & Cook, 1995; Frey, 2008)

행복의 영향 요인 '빅 세븐'(Layard,2005)

- 사람들의 행복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① 가족관계 ② 재정 ③ 일 ④ 공동체와 친구 ⑤ 건강 ⑥ 개인의 자유 ⑦ 개인의 가치관 등 모두 7가지를 들고 이를 '빅 세븐'이라 명명
 -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
 - * 가족 간의 사랑이 모든 관계의 원천이 되며 사랑을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고 보았기 때문
 - 실업은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히므로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 사람들이 실직하면 불행해지는 이유에 대해 소득을 잃어서라기보다 일 자체를 잃어서라고 설명
 - 이웃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의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일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 정부의 질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한다고 언급
 - 개인의 가치관이 빅 세븐에 포함된 것은 개인이 갖는 삶의 철학을 행복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
 - *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점 등을 언급
 - * Myers(1992)도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에 행복과 만족을 더 느낀다는 점을 북미와 유럽에서 실시한 여러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하기도 함

행복의 영향 요인 '빅 세븐'



- 경제성장을 우선의 가치로 여겨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적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 정립이 요구되며, 행복의 영향 요인 중에서도 내재적 선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극한적인 경쟁 환경에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틀에서 접근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으로 사회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김미영, 2009)
 - 일본에서 활동 중인 Lummis 교수도 ‘파이가 커지면 조각도 커진다’는,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논리에 대해 거짓이라 반박하면서 참다운 풍요는 물질의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에 있다고 말함(라ミス, 2000)
 - * 오늘날의 경쟁사회를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살기 좋은 공생사회 혹은 상부상조의 사회, 어떤 이도 빠짐없이 서로 뒤를 돌아보아주는 진정한 의미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 물질만의 풍요가 아니라 참다운 의미의 풍요를 추구하는 사회, 그리고 정의에 바탕을 둔 사회로 바뀌갈 필요가 있음을 역설
 - 구재선·서은국(2011)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동안 상당한 에너지를 학벌, 직업, 물질 취득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이면에는 학벌, 직업, 돈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신념이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 * 물질적 풍요 자체만으로는 국가의 행복 수준이 향상될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행복도 향상을 위해서는 스스로 의미를 느끼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함을 제언
 - Veenhoven(1999; 2010)은 행복을 삶의 일부가 아닌 지속적인 상태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정책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
- Bok(2010)는 행복이 정책의 목표로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해도, 행복은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역설
 - 행복을 주제로 연구한 여러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면 그 이상의 소득은 행복과 큰 연관성을 갖기 어렵고, 돈보다는 가족과 친구 등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등이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

- Frey & Stutzer(2001; 2005)도 자발적인 봉사나 친절한 선행 활동이 행복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은 다른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 Dunn et al.(2008)은 피실험자들에게 현금을 준 후 한 집단은 자신을 위해, 다른 집단은 다른 사람에게 지출하도록 한 실험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

- 또한 지속적인 행복이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행복이 정책의 목표로서 정당한 것임을 주장(Bok, 2010)

- 사람들이 약자에게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 행복해진다면 행복이라는 가치는 정책의 목표로서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이를 통해 행복이 향상되는,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기도 함

- 심각한 불행에 빠진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은 전반적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김윤태, 2009)

-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인이 행복해야 하는데, 이는 행복한 사람들이 남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협동적이고 기부금을 잘 내며 사회봉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지면 사회도 그만큼 살기 좋게 된다는 논리에 기초

- 우리 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행한 사람이 적어져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행복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

* 이정전(2008)은 '행복을 의무로 삼는 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이뤄나가야 할 사회라고 주장

행복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복도 조사의 필요성

- 행복이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견·선택·훈련해야 하는 것(Ben-Shahar, 2014)이며, 이러한 관점으로 행복을 지역정책에 접근하면 정부는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실제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있음

- 권영섭(2013)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이 지역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지역 주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역 환경의 발전상태'를 '행복한 지역발전'으로 정의

- 이러한 의미로서의 '행복한 지역발전정책'을 지자체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을 둘러싼 환경, 즉 지역 환경의 질을 높이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행복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행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이므로(Duncan, 2013), 정부는 주민들에게 행복 향상을 위해 삶의 질과 상관성이 높은 공공서비스를 파악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김병섭 등, 2015b)
- Layard(2005)도 행복의 향상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일로서 개인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들도 모두 참여해야 함을 강조
- 그리고 정부 조사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측정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만큼 행복에 중요한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
- 주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한다면 부족한 부문에 대해 개선하여 행복도를 향상시키고 관련 분야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제주도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도정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존의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와는 차별된 '행복지표'를 개발
 - * 김병섭 등(2015b)은 행복에 대한 연구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그 가치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행복 연구는 기존 삶의 질 연구와 무엇이 다른지 제시해주어야 함을 강조

II 지자체 행복지표 개발 사례의 검토

1. 국내 사례 :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요 : 사례 선정의 근거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행복지표를 개발해 매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나, 일부 시도연구원에서 행복지표를 개발했거나 시범적으로 측정한 연구가 존재
 -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한 사례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더 많은 시도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행복지표를 개발한 시도의 사례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함
- * 행복지표를 개발한 시도의 수는 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모두 8개로 파악
- 행복지표 선정에 있어 선행연구의 활용은 효율적인 방법이며, ‘국가’가 아닌 ‘시·도’ 단위에서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같은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형 행복지표(2015; 2017)

- 전 세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행복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형 행복지표를 개발
 - 2014년 서울연구원에서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형 행복지표로 11개 영역, 24개 세부지표를 선정(보고서는 2015년 발간)
- 2014년에 설계한 행복지표의 기본 틀 위에 시민행복의 영향요인 분석 및 지표에 대한 시민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형 행복지표를 2017년에 재구축한 결과, 최종적으로 8개 영역(13개 세부영역), 41개 세부지표 선정

- ‘2016년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한 서울시민의 행복 영향요인 분석 결과,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해 2014년에 개발한 행복지표에 사회연결망(사회적 약자)과 공동체 영역을 추가
- 2017년 11월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복지표의 영역별·지표별 중요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
- 기존 지표 중 공유기업, 실업률, 예술 활동 참여도, 투표율, 공원 등 5개 지표에 대해 대체 또는 삭제의 필요성을 확인
- 전반적 행복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63.4점으로 나타남
 - 생활영역별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생활수준 5.49점, 인생 성취도 5.54점, 개인적 인간관계 5.85점, 체감 안전 5.56점, 지역사회 일원 5.31점, 미래 안정성 5.04점, 좋아하는 것에 대한 시간 활용 5.52점, 거주 지역의 생활환경 5.91점 등을 나타냄

서울형 행복지표(안) 구성체계

영역	세부지표	설명	중요도	
			1안	2안
1. 경제			5.54	18.8
1) 경제활동	소득만족도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5.29	37.6
	평균소득	월평균 소득	5.22	32.1
	경제활동인구	전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비율	4.92	16.2
2) 경제적 다양성	사업다양성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	4.91	12.1
	공유기업	공유기업 수	4.68	2.0
2. 일자리			5.57	18.1
3) 일자리	직업안정성	지난 6개월간 고용되어 있는지 여부	5.54	44.3
	실업률	15~64세의 실업률(연간)	5.41	20.9
	직업만족	직업만족도	5.50	34.8

영역	세부지표	설명	중요도	
			1안	2안
3. 인적역량			5.31	1.5
4) 교육	교육능력	정규교육을 받은 기간	5.09	34.6
	교육정도	25~64세 중 고등교육 이수율	4.92	27.2
	교육만족도	교육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5.33	38.2
4. 건강·안전			5.79	25.7
5)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 또는 나쁘다로 평가	5.37	30.4
	기대여명	어느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	5.04	7.5
	정신건강	스트레스 정도	5.78	35.4
6) 안전	살인율	인구 10만 명당 살인건수	5.34	7.1
	폭행률	폭행 및 강도로 인한 피해경험	5.39	6.6
	야간안전	밤거리 안전도	5.72	13.0
5. 문화·시간			5.39	8.3
7) 문화·여가	문화환경 만족도	서울의 문화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28	14.0
	문화생활 참여정도	문화생활 참여율	5.03	11.8
	예술활동 참여도	예술활동 참여율	4.72	4.2
8) 시간 활용	근로시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	5.51	26.5
	수면시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	5.56	13.9
	일과 여가의 균형정도	장시간 근무 비율	5.43	29.6
6. 사회관계			5.00	3.0
9) 연결망	연결망	필요할 때(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지인이 있는지 여부	5.57	8.8
	사회적 유대	편안한 사람들(친구, 가족 등)과 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	5.54	16.6
	자원봉사율	자원봉사 참여 비율	4.75	3.0
	투표율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투표인 수/등록인 수)	5.06	2.9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정도	5.38	7.0

영역	세부지표	설명	중요도	
			1안	2안
10) 공동체	가족 신뢰	가족 신뢰도	5.82	23.2
	이웃 신뢰	이웃 신뢰도	5.21	8.7
	공공 신뢰	공공기관의 신뢰도	5.49	15.2
	계층 이동 가능성	계층 이동 가능성	5.21	5.8
	공동체 의식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5.04	8.8
7. 거주 환경			5.67	13.4
11) 주거 환경	주거비	가계수입에서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5.58	31.7
	환경오염	미세먼지 농도	5.65	25.2
	공원	1인당 공원면적	5.08	8.0
12) 교통	보행환경	보행환경 만족도	5.26	9.4
	대중교통만족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의 시민이용만족도	5.72	25.7
8. 생활만족				
13) 생활만족	주관적 웰빙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5.61	41.0
	긍정적 감정	즐거움/행복 정도	5.63	45.8
	부정적 감정	근심/걱정/우울 정도	5.33	13.2

주: ¹ N=500

² 음영 처리된 지표는 시민조사 결과 삭제 또는 대체해야 할 지표에 해당

³ 각 영역의 중요도는 8개 영역 간에 평가된 점수를 의미

⁴ 중요도 점수에서 1안은 세부지표의 중요도 평가 개별 문항의 응답값(7점 만점)에 해당하고, 2안은 영역별 세부 지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두 가지를 선택하는 문항으로 중복응답 값을 100% 비율로 환산한 값을 의미

자료: 변미리 등(2017: 69-86)의 재구성

대전형 행복지표(2016)

- 시민의 행복 여건과 주관적 행복도,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행복지표 체계 개발
 - 행복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전형 행복지표(안) 체계는 6대 영역, 34개 세부지표로 구성
 - 국내·외 행복지수 사례*에서 제시된 영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전형 행복지수의 체계를 6대 영역(생애 주기별 특성지표 10개 제외)으로 설정
- * UNDP HDI, EIU 삶의 질 지수, NEF HPI, WHO QOL, OECD BLI, 캐나다 CIW, 호주 웰빙지수, 일본 PLI, 통계청 삶의 질, 미래전략연구원 국민행복지수, 서울행복지표, 충남행복지표 등
- 세부지표는 해당 영역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개인 수준에서의 행복 수준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

대전형 행복지표(안) 구성 체계

영역별 세부지표	지표 성격	산출 방식	자료원
1. 경제적 안정			
• 가처분가구소득	객관적	세후 가처분 가구소득	대전의 사회지표
• 고용률	객관적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대전의 사회지표
• 소득만족도	주관적	소득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일자리만족도	주관적	일자리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2. 건강과 주거			
• 기대수명	객관적	연령대별로 생존할 수 있는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한 연수	통계청 생명표
• 소득대비주택임대비	객관적	소득에서 주택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주거비 부담정도를 산출	미산출

영역별 세부지표	지표 성격	산출 방식	자료원
• 주관적 건강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스트레스인식도	주관적	지난 2주동안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주거환경만족도	주관적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3. 문화와 여가

• 문화여가시간	객관적	하루 평균 소비하는 여가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문화여가지출비율	객관적	가처분소득에서 문화여가에 지출하는 비율	미산출
• 문화여가활동만족도	주관적	문화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 인터넷접근능력만족도	주관적	인터넷 접근능력에 대한 만족도	미산출 (예: 캐나다의 CIW)

4. 공동체 활력

• 가족관계접촉빈도	주관적	직계가족과의 평균 접촉 정도	미산출 (한국종합사회조사)
• 가족관계만족도	주관적	가족관계에 있어 가족생활 전반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사회단체참여율	객관적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사회적 관계망	주관적	도움을 받을 수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대전의 사회지표
• 자원봉사참여시간	객관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	대전의 사회지표
• 지역사회소속감	주관적	지역사회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	미산출 (한국종합사회조사)
• 시민권 보장에 대한 인식도	주관적	시민으로서 권리 향유 정도	미산출
• 기부정도	객관적	기부액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사회적 신뢰도	주관적	일반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5. 주관적 웰빙

• 전반적 삶의 만족도	주관적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대전의 사회지표
• 긍정적 정서경험	주관적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부정적 정서경험	주관적	근심과 걱정, 우울감의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주관적	하는 일에 대한 가치부여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영역별 세부지표	지표 성격	산출 방식	자료원
6. 삶의 질의 도시기반 (안전, 환경, 교통)			
• 범죄율	객관적	범죄발생건수	대전의 사회지표
• 교통사고발생율	객관적	교통사고발생건수	대전의 사회지표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주관적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한 인식	미산출 (통계청 사회조사)
• 대중교통이용만족도	주관적	대중교통 이용에 만족하는 정도	대전의 사회지표
• 미세먼지농도	객관적	미세먼지농도	미산출(기상청)
• 온실가스배출량	객관적	온실가스배출량	미산출
• 수질오염도	객관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대전의 사회지표 (환경부 환경통계)
• 체감환경만족도	주관적	살고 있는 지역환경 개선정도	미산출 (통계청 사회조사)
특성 지표 (생애 주기별)			
• 아동기 아동학대피해경험률	객관적	아동학대발생건수	미산출(복지부)
학교폭력발생율	객관적	학교폭력발생율	미산출(교육부)
학업성취도	주관적	학업성취에 대한 개선정도	미산출(교육부)
학생의 수면시간	객관적	학생의 평균 수면시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교우관계만족도	주관적	교우관계에 만족하는 정도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교생활만족도	주관적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성인기 사교육비지출비율	객관적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대전의 사회지표
평생교육참여율	객관적	평생교육의 참여율	대전의 사회지표
• 노년기 연금수급률	객관적	국민연금 수급액	대전의 사회지표
노인장기요양보호율	객관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미산출

자료 : 박노동 등(2016: 128-129)의 재구성

세종 행복지표(2015)

- 세종시의 시정 발전과 복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행복도 측정을 위해 행복지표 개발
 - 최종적으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안) 체계는 11개 부문, 70개 세부지표(객관적 지표 62개, 주관적 지표 8개)로 구성
 - 행복 이론과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표를 선정
- * UN World Happiness Report, OECD Better Life Initiative, UNDP Human Development Index, WHO QOL, 부탄 Gross National Happiness(GNH), 프랑스 Gross National Happiness(GNH), 영국 National Well-being, 일본 국민행복지수, 캐나다 국민행복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홍콩 삶의 질 지수, 네덜란드 Life Situation Index, 통계청 삶의 질 측정 지수(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행복지수, 서울시민 행복지수, 충청남도 행복지수, 전라북도 사회지표, 기초자치단체(광명시, 하동군) 행복지수 등
- 지표의 동등가중치 부여를 통한 부문별 차등가중치를 적용하고, 단위정상화기법으로 지표값을 표준화된 값으로 변환하여 지수 산출

■ 세종 행복지표(안) 구성 체계 및 지표별 특별·광역시 비교 ■

부문별 세부지표	성 격	8개 특별·광역시 비교	
		표준화값	순위
1. 인구			
• 기대수명	+	0.00	8
• 생산가능인구	+	1.46	1
• 노령화지수	-	0.20	4
• 인구유입	+	2.47	1
• 인구유출	-	1.99	1
• 순이동	+	2.47	1
• 출생률	+	1.51	1
• 주민등록인구(남)	+	1.07	2
• 주민등록인구(여)	+	-1.07	7
• 주민등록인구(총계)	+	-0.89	8

부문별 세부지표	성 격	8개 특별·광역시 비교	
		표준화값	순위
2. 고용노동임금			
·경제활동인구	+	-0.96	7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고졸 이하)	-	0.00	8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대졸 이상)	+	0.00	6
·취업자(남)	+	0.00	1
·취업자(여)	+	0.00	1
·취업자(총계)	+	0.00	1
·교육정도별 취업자(고졸 이하)	+/-	0.00	8
·교육정도별 취업자(대졸 이상)	+	0.00	6
·산업별 취업자	+	-1.34	8
·사업체수	+	-1.33	8
·종사자수	+	0.00	3
3. 물가가계			
·가계 자산	+	0.00	4
·가계 부채	-	0.00	5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 평균분양가격)	+	2.47	1
·생활물가지수	-	0.00	8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	-1.57	8
·지가변동률	-	-1.16	7
4. 보건사회복지			
·수술종류별 수술현황(계)	+	0.62	2
·교통사고 발생현황	-	0.79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총괄	-	-0.18	5
·주관적 소득수준(사회조사 항목 내)	+	0.00	4
·소득만족도(사회조사 내)	+	0.00	5
·고용 안정성(사회조사 내, 노동 파트)	+	0.00	8
·근로여건 만족도(전반적인 만족도, 사회조사 내)	+	0.92	2
·학교생활 만족도(13세 이상 재학생, 사회조사 내)	+	1.92	1
·의료서비스 이용률(사회조사 내)	+	0.00	4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	0.00	4
·현재 체감환경(대기, 사회조사 내)	-	0.49	4
·현재 체감환경(수질, 사회조사 내)	-	0.75	3
·생활여건의 변화(전반적인 생활여건, 사회조사 내)	+	-0.94	7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전반, 사회조사 내)	+	2.34	1
·어린이집 현황	+	1.84	1
·직장어린이집 현황	+	2.38	1

부문별 세부지표	성 격	8개 특별·광역시 비교	
		표준화값	순위
5. 환경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	0.00	7
·아황산가스	-	0.00	7
·이산화질소	-	0.00	5
·상수도 보급	+	-2.46	8
·하수도 보급	+	-1.32	8
6. 공공업에너지			
·생산액	+	0.28	2
·부가가치	+	0.75	2
·유형자산	+	0.67	2
·사업체수	+	1.67	1
·종사자수	+	0.49	3
7. 건설주택토지			
·주택보급률	+	0.74	2
·임대주택건설실적	+	2.29	1
8. 교통정보통신			
·도로보급률	+	-0.43	5
·시·도별 포장률	+	-2.31	8
9. 도소매서비스			
·산업별 총괄	+	-1.32	7
·서비스업조사(산업별 분류)	+	-1.42	7
10. 재정			
·재정자립도	+	-0.60	6
·GRDP(지역내총생산)	+	0.00	4
·지역별예금(말잔)	+	-0.52	7
11. 교육문화과학			
·중학교	+	2.12	1
·고등학교	+	1.94	1
·연구개발 조직의 연구개발 주체별 지역별 분포	+	0.00	4
·공공도서관 좌석수	+	-1.10	8
·박물관 수	+	0.00	2
·미술관 수	+	-1.06	7
·체육시설 수	+	-1.55	8
·공연장 수	+	-1.96	8

자료 : 박승규 등(2015: 71-96)의 재구성

강원 행복지수(2012; 2014)

- 강원도의 핵심 도정목표인 ‘행복 두 배’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지수의 측정을 목표로 행복지표 개발
- 최종적으로 선정된 강원 행복지수(안) 체계는 5개 영역, 26개 세부지표로 구성
 - 국내·외 행복지수 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영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강원 행복지수의 체계를 5개 영역으로 설정

* UNDP HDI, WHO QOL, NEF HPI, OECD NIW, EIU 삶의 질 지수, 부탄 GNH, 캐나다 CIW, 호주 웰빙지수, 일본 신국민생활지표, 홍콩 삶의 질 지수, 강창민(2010), 조성호 등(2009), 장영식 등(2007), 허철행·김도엽(2000), 김승권 등(2008), 서울시민 행복지수(2006), 김명소·한영석(2006), 김용하 등(2009), 정선기(2007), 황명진·심수진(2007) 등

- 세부지표는 해당 영역의 대표성을 가지면서 정책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26개 지표를 표준화 Z-값을 적용해 지수화 하고, 영역별 세부지표들의 표준화 지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인 행복지수 산출

강원 행복지수(안) 구성 체계

영역별 세부지표	산출(측정)방법
1. 경제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GRDP • 고용률 • 평균 근로시간 • 물가상승률 • 재정자립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총생산/내국인 주민등록인구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 소비자물가상승률 - {(지방세수입+세외수입)/세입총액} × 100
2. 사회복지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예산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 유아보육시설 수 • 노인여가시설 수 • 자원봉사자 비율 • 이혼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주민등록인구 - 유아(0~4세) 천 명 당 유아보육시설 - 노인 천 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 인구 천 명 당 등록 자원봉사자 수 - 조이혼율

영역별 세부지표	산출(측정)방법
3. 교육·문화 영역	
• GRDP 대비 교육예산 비율	- 교육특별회계 예산액/지역내총생산
•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
• 평생교육기관 수	- 인구 만 명 당 평생교육기관 수
• 문화기반시설 수	- 인구 만 명 당 문화기반시설
4. 의료보건 영역	
• 의료인력 수	- 인구 천 명 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 유병률	- 지난 2주일간 아픈 적 있던 사람 비율
• 음주율 및 흡연율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 기대여명	- 출생 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5. 생활기반 및 환경 영역	
• 주택가격 상승률	-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상승률의 평균
• 상·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 평균
• 도로포장률	- 전체 도로 중 포장도로 비율
• 생활안전도	- 범죄율, 화재발생률, 교통사고 발생률의 평균
• 1인당 임목 축적량	- 임목축적량/인구
• 공원조성 면적	- 인구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 면적

자료 : 황규선(2012: 49-50)의 재구성

행복지수 영역별 표준화 점수 산출 결과(강원도 표준화 지수 및 순위)

구분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의료보건	생활기반및환경	총계
표준화 지수 (시·도 순위)	-2.5895 (14)	-1.8470 (13)	4.9262 (1)	-3.5091 (15)	-0.4198 (10)	-3.4392 (13)

자료 : 황규선(2012: 61)의 재구성

- 위와 같이 객관적 지표로 행복지수(안) 구성 체계를 마련(황규선, 2012)하고, 이와는 별도로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주관적 지표에 의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고 도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황규선, 2014)
 - 도민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으로 이원화하여 분석

*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문화적 풍요로움 등 통상 안녕감(well-being)이라 불리는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에 근거한 차원

** 의식주, 건강, 성별, 연령, 소득, 보건 등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한 차원

-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에서의 행복도 조사는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표본 수는 각각 3천 명*과 5백 명으로 설정

* 실제 분석은 응답 거부 3건을 제외한 2,997건이 대상

- 주관적 차원에서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중요도 조사를, 객관적 차원에서는 만족도 조사만 실시하였고, 척도의 경우 전자와 후자가 각각 10점과 5점으로 상이
- 주관적 차원의 조사에서 실시된 종합적인 행복도 평가의 결과는 10점 만점에 평균 6.89점을 나타냄

*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영북 지역(속초·고성·양양 등) 주민들이 행복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주관적 차원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강원도민의 만족도 및 중요도 점수 ▮

요인별 세부지표	평균(10점 만점)		A-B
	만족도(A)	중요도(B)	
1. 인적·사회적 관계 요인			
·자아 존중감	7.01	8.36	-1.35
·가족생활	7.59	8.80	-1.21
·가족도 관계	7.80	8.90	-1.10
·친구와 동료 관계	7.16	8.26	-1.10
·주관적인 건강 수준	6.74	8.52	-1.78
·종합 점수(평균)	7.26	8.57	-1.31
2. 경제적 요인			
·경제적 보유 충족감	5.64	7.65	-2.01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5.49	7.57	-2.08
·자신이 하고 있는 일	6.42	8.10	-1.68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원하는 일의 일치 정도	6.02	7.78	-1.76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급여와 근무환경	5.82	7.73	-1.91
·종합 점수(평균)	5.88	7.77	-1.89

주 : N=2,997

자료 : 황규선(2014: 16-52)의 재구성

■ 객관적 차원 행복 결정요인에 대한 강원도민의 만족도 점수 ■

부문별 세부지표	만족도 (5점 만점)	부문별 세부지표	만족도 (5점 만점)
1. 안전 분야			
① 치안수준	3.17	② 안전	3.28
· 거주지역 치안수준	3.29	·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3.44
· 내 집의 범죄로부터 안전	3.36	· 사회적 재해로부터의 안전	3.41
· 경찰의 순찰활동	3.14	· 교통안전 환경	3.20
· 경찰의 사건대응	3.06	· 어린이 안전환경	3.06
· 방범시설 수준	3.02		
· 대중교통 이용 시 치안환경	3.12		
2. 의료보건 및 복지시설			
③ 의료보건시설	2.88	④ 복지시설	2.75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2.81	· 육아보육시설	2.94
·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3.08	· 노인복지시설	2.97
· 지역 내 병원의 종류와 수	2.76	· 청소년복지시설	2.59
		· 여성복지시설	2.62
		· 장애인복지시설	2.65
3. 생활환경			
⑤ 교육환경	2.92	⑦ 교통환경	3.18
· 공공교육 수준 및 환경	3.00	· 버스 이용 편의성	2.97
· 사교육 수준 및 환경	2.81	· 승용차 이용 편의성	3.46
· 자녀의 친구들 수준	3.10	· 보행환경	3.26
·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2.77	· 주차환경	3.04
⑥ 편의시설	2.82	⑧ 거주환경	3.28
· 공원, 오픈스페이스	3.04	· 지역의 경관	3.47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2.66	· 지역의 청결성	3.38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3.03	· 우리집 생활비용의 적절성	2.91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2.41	· 우리 지역 주거 비용의 적절성	2.95
· 체육시설	2.97	· 이웃과의 관계	3.51
		· 부적합시설로부터 주거환경 쾌적 정도	3.46
4. 경제적 요인			
⑨ 경제	2.49		
· 일자리 기회	2.29	· 향후 지역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	2.67
· 지역 주민소득 평균	2.51		

주 : ¹ N=500

² 치안수준 등을 포함한 9개 부문의 총괄적인 만족도는 세부지표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출
 자료 : 황규선(2014: 53-79)의 재구성

충청북도민 행복지수(2015)

- ‘도민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분야를 강화·보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행복지수를 개발·측정
 - 행복지수 측정을 근거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 행복지수를 높이고 관련계획을 수립·집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 최종적으로 선정된 충청북도민 행복지수(안) 체계는 8개 영역, 70개 세부지표로 구성
 - 국내·외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도출
 - * 외국의 행복 관련 이론을 포함하여 연구보고서, 단행본, 논문 등을 수집
 - 행복지수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의 행복지수*와 연계하여 분석
 - * OECD BLI(Better Life Index), UN World Happiness Report, 부탄의 GNH, 캐나다의 웰빙지수(CIW : Canadian Index of Wellbeing), 뉴질랜드의 사회적 웰빙지수(Indicators of Social Wellbeing),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수(Life Situation Index), 지구촌 행복지수(HPI : Happy Planet Index)
- 충청북도민 행복지수(안) 측정을 위해 2015년 10~11월 충북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병행하여 조사 실시
 - ‘행복지수 평가 영역’, ‘전반적인 행복감**’, ‘일반적인 사항***’ 등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하여 행복도 조사 수행
 - * 8개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조사를, 주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
 - ** 도민 행복감, 5년 전·후 및 현재의 행복감, 정신적 상태(건강, 재정, 심리적 안정, 일에 대한 만족, 문화생활 및 여가, 교육 환경, 사회공헌도, 가정생활, 주위친지·친구관계, 사회생활, 주거안정감 등) 등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
 - *** 성, 연령, 가구원 수, 주거형태, 거주지역, 직업 등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
 - 행복지수 총평균*은 5.66점으로, 8개 영역의 각 세부지표를 종합하여 평균을 산출
 - * 행복지수 총평균 = 8개 영역(① 건강·보건** ② 가족·공동체 ③ 주민참여 및 신뢰 ④ 교육·학습 ⑤ 경제적 안정 ⑥ 문화·여가 ⑦ 주거·안전 ⑧ 환경)별 만족도 평균의 총합/8
 - ** 건강·보건영역 만족도 평균 = 5개 세부지표(① 주관적인 건강 수준 ② 가족의 건강 수준 ③ 규칙적인 운동 여부 ④ 편의 및 보호시설 ⑤ 지역공중보건)별 만족도 평균의 총합/5

- 또한 24명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8개 영역에 대해 계층적 분석 방법(AHP)으로 설문하여 가중치를 산정·적용한 결과 최종 행복지수는 5.92점으로 산출
-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는 가족·공동체 영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안정 영역, 주거·안전 영역 등의 순으로 나타남

Ⅱ 충청북도민 행복지수(안) 구성체계 및 설문 결과 Ⅱ

영역	주관적 평가 대상 지표	중요도 만족도		우선순위 평가 대상 지표	우선순위평균
		중요도	만족도		
		7.47	5.91		
건강·보건	·주관적인 건강 수준	6.68	·1인당 사회복지비	1.98	
	·가족의 건강 수준	6.93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2.67	
	·규칙적인 운동 여부	5.10	·기대수명	2.83	
	·편의 및 보호시설	5.29	·흡연률과 음주량	3.63	
	·지역공중보건(보건소, 지방의료원)	5.52	·인구 천 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3.85	
		8.07	7.10		
가족·공동체	·가족생활 만족도	7.14	·가족접촉빈도	1.52	
	·부부생활 만족도	6.75	·1인 가구	2.61	
	·가족원 관계 만족도	7.34	·이혼율	2.63	
	·친구 및 동료관계 만족도	7.17	·자살률	3.24	
		5.93	4.99		
주민참여·신뢰	·지역사회 참여여건 만족도	5.31	·사회단체참여율	2.19	
	·충북도정의 주민 소통	4.76	·투표율	2.53	
	·종교단체 신뢰	4.72	·정보공개율	2.61	
	·행정기관 신뢰	5.18	·자원봉사참여율	2.66	
	·시민사회단체 신뢰	4.99			
		6.36	5.25		
교육·학습	·평생교육 기반 조성 만족	5.35	·평생교육율	1.97	
	·학교 학습내용 만족	5.45	·평균교육연수	2.42	
	·사교육 만족	4.86	·대학진학율	2.63	
	·평생교육 학습 만족	5.34	·1인당 장서 수(공공도서관)	2.98	

영역	주관적 평가 대상 지표	중요도 만족도		우선순위 평가 대상 지표	우선순위평균
		중요도	만족도		
		7.12	5.29		
경제적 안정	• 경제활동의 다양한 기회	5.46		• 1인당 소득	1.94
	• 충북 전반적 일자리 여건	5.02		• 소득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2.86
	• 직장 내 스트레스 없음	5.54		• 고용률	3.17
	• 소득수준	5.44		• 가계부채율	3.76
	• 노후를 위한 준비	4.98		• 비정규직 비중	4.50
	• 소비 수준	5.29		• 65세 이상 인구비율	4.71
			6.44	4.95	
문화· 여가	• 충북 문화·여가·관광 여건	5.01		• 평균 여가 시간	1.81
	• 문화유적, 공연, 축제 충분	4.88		• 문화예술 시설수	2.36
	• 지역문화 여가 생활 향유	4.95		• 공공체육시설 수	2.86
				• 국내·외 관광	2.98
		7.35	6.15		
주거· 안전	• 주택(주거환경) 만족	6.47		• 주택보급율	2.00
	• 대중교통과 주차시설 만족	5.90		• 범죄발생 건수	2.60
	• 통근시간(승용차, 버스) 만족	6.25		• 교통사고 발생 건수	3.03
	• 재해·재난안전사고의 안전성	6.00		• 화재발생율	3.65
				• 도로포장율	3.71
		7.20	5.66		
환경	• 충북의 환경 여건	5.85		• 대기 및 수질오염	1.92
	•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 위협 가능성	5.60		• 상·하수도 보급률	2.48
	•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청결상태	7.74		• 폐기물 및 쓰레기 배출량	2.62
				•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 면적	2.98

주 : ¹ N=1,200

² 중요도 설문(10점 만점)은 8개 영역에 대해서만 실시

³ 각 영역의 만족도 점수(10점 만점)는 해당 영역 세부지표 만족도들의 평균

⁴ 우선순위 평균은 영역 내에서 해당 지표가 차지하는 순위에 대한 평균으로서 점수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음을 의미

자료 : 최용환 등(2015: 48-65)의 재구성

충청북도민의 일반적 행복감에 대한 설문 결과

영역별 세부지표	평균	영역별 세부지표	평균
1. 도민 행복감(10점 만점)	6.81	3. 정신적 상태(계속)	
2. 5년 전·후 및 현재의 행복감(100점 만점)		• 일에 대한 만족	6.22
• 5년 전	63.34	• 문화생활 및 여가	5.62
• 현재	66.35	• 교육 환경	5.40
• 5년 후	75.72	• 사회 공헌도	5.04
3. 정신적 상태(10점 만점)		• 가정 생활	6.97
• 자신의 건강상태	6.70	•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7.07
• 자신의 재정상태	5.71	• 사회 생활	6.61
• 심리적 안정	6.49	• 주거 안정감	7.00

자료 : 최용환 등(2015: 66-79)의 재구성

충청북도민 행복지수(안) 영역별 만족도 점수 및 AHP 기법에 의한 행복지수의 산출

구 분	8개 영역								행복지수 산출
	건강· 보건	가족· 공동체	참여· 신뢰	교육· 학습	경제적 안정	문화· 여가	주거· 안전	환경	
만족도(A)	5.91	7.10	4.99	5.25	5.29	4.95	6.15	5.66	5.66(=Σ8개 영역별 만족도/8)
가중치(B)	0.235	0.227	0.044	0.062	0.186	0.068	0.093	0.085	1.00(=Σ8개 영역별 가중치)
A×B	1.39	1.61	0.22	0.33	0.98	0.34	0.57	0.48	행복지수 5.92(=Σ8개 영역별 A×B)

주 : ¹ N=1,200(만족도, A); N=24(가중치, B)

² 각 영역의 만족도 점수(10점 만점)는 해당 영역 세부지표 만족도들의 평균

자료 : 최용환 등(2015: 82, 87-88)의 재구성

충청북도 도민들의 전반적 행복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계 수			ANOVA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β)	t	F
	B	표준오차			
•(상수)	1.203	.200	-	6.002*	111.661**
•건강·보건 영역	.096	.032	.086	3.056**	
•가족·공동체 영역	.351	.024	.363	14.390**	
•주민참여·신뢰 영역	.032	.033	.031	.962	
•교육·학습 영역	.000	.034	.000	.011	
•경제적 안정 영역	.192	.032	.189	6.057**	
•문화·여가 영역	.005	.029	.006	.181	
•주거·안전 영역	.150	.029	.146	5.137**	
•환경 영역	.074	.031	.068	2.377*	

주 : ¹ N=1,200

² *p<.05 **p<.01

³ 비표준화(B)를 통해 회귀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음

$$\hat{Y} = 1.203 + 0.096X_1 + 0.351X_2 + 0.192X_3 + 0.150X_4 + 0.074X_5$$

(\hat{Y} = 전반적 행복도, X_1 = 건강·보건 영역, X_2 = 가족·공동체 영역, X_3 = 경제적 안정 영역, X_4 = 주거·안전 영역, X_5 = 환경 영역)

자료 : 최용환 등(2015: 89)의 재구성

충남도민 행복지표(2012; 2013)

- 충남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을 위해 충남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충남도민에게 적용 가능한 행복지표 개발
 -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영역을 설정하고, 이들 영역별로 선정기준과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세부지표를 선정
 - * 2012년 8~9월에 충남 15개 시·군 주민 2,010명을 대상으로 영역별 세부지표에 대한 우선순위와 영역별 전반적인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위와 같이 2012년 충남연구원에서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충남도민 행복지표로 9개 영역(30개 부문), 81개 세부지표(객관적 지표 40개, 주관적 지표 41개)가 선정되었고, 이들 지표에 대해 2013년 실제 측정 실시
 - 주관적 지표의 경우 충남 15개 시·군 1,0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에 설문조사(10점 만점의 만족도 중심) 실시

■ 충남도민 행복지표(안) 구성 체계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만족도 (10점 만점)
	지표명	자료원	통계치	지표명	
1. 주거 및 교통 부문					
• 주거	주택전세가격 지수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95.9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5.7
• 교통	교통사고 발생건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447.2건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5.3
• 공원 및 생활편익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면적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	10.7㎡	-	-
• 안전	범죄발생건수	KOSIS	3,420건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5.4
2. 일자리·소득·소비 부문					
• 고용상태	고용률	KOSIS	61.5%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5.5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KOSIS	50.9%		
	여성실업률	KOSIS	2.4%		
	비농가 실업률	조사 필요	-		
	비정규직 비중	KOSIS	33.1%		
• 근무환경	실질임금 총액	사회조사	-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5.9
	성별 임금격차	노동부	-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5.2
3. 가족 및 공동체 부문					
• 가족관계	-	-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충분성	5.0
				가족관계 만족도	6.4
				가족 갈등 수준	3.7
				가족 폭력경험	2.8
• 가족형태	한부모 비율(모자)	통계청	5.1%	-	-
	한부모 비율(부자)	통계청	1.5%		
	독거노인 비율	통계청	15.4%		
	소년 소녀 가정 비율	보건복지부	0.001%		
• 일·가족 양립	-	-	-	부정적 일가족 전이	4.4
				부정적 가족 전이	4.0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만족도 (10점 만점)
	지표명	자료원	통계치	지표명	
• 사회적 관계	가까운 친구 수	조사 필요	-	사회적 관계유지	6.4
	심만 명당 자살률	통계청	44.9%		
	사회단체 참여율	조사 필요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5.7
• 사회적 신뢰	-	-	-	사회적 신뢰	5.0
4. 교육 부문					
• 교육기회	영유아교육 접근성	조사 필요	-	취업수준 만족도	5.8
	고등교육 접근성	조사 필요	-		
	평생교육 접근성	조사 필요	-		
• 교육여건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육부	14.6명	교우관계	6.1
	1인당 장서 수	교육부	-	교사와의 관계	5.7
• 교육성과	성적	-	-	사교육비 및 사교육 효과성	4.7
	학습시간	-	-	학습내용 만족도	5.3
5. 문화·여가 부문					
• 기존 지표 활용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림여부	통계청	45.8%		
	레저시설 이용 여부	통계청	62.3%		
	국내관광여행 여부	통계청	61.2%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통계청	11.8%		
• 문화자원 및 문화활동	-	-	-	지역 문화자원 인지도	5.1
• 만족도 조사	-	-	-	지역 자원활용 여부	4.9
	-	-	-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5.1
6. 환경부문	-	-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5.2
• 물	하천수질(보통 등급 이하 비율)	환경부 물환경정보	32.9%	수질만족도	5.5
	호소수질(보통 등급 이하 비율)	환경부 물환경정보	87.0%		

영역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만족도 (10점 만점)
	지표명	자료원	통계치	지표명	
• 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율(관리지역외지역 지정율)	환경부 폐기물현황	4.7%	주변 청결상태	5.3
	• 환경보건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	환경부	-	건강위험
7. 건강·보건 부문					
• 건강 상태	출생시 기대수명	KOSIS 사회조사	81.1세	스트레스 수준	5.5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KOSIS 사회조사	-	건강상태 주관적 평가	5.9
	흡연율	KOSIS 사회조사	25.7%		
	음주율	KOSIS 사회조사	66.2%		
• 의료 서비스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KOSIS 사회조사	11.6병상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5.4
	의료비 본인부담률	KOSIS 사회조사	-	의료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5.2
8. 주민참여 부문					
• 참여기반에 대한 인식	-	-	-	도정 운영 만족도	4.9
				주요정책인지도	4.6
	투표율(국회의원)	선관위	52.4%	도정 참여 영향 인식	4.7
• 참여	투표율(지방선거)	선관위	58.0%		
	투표율(대통령)	선관위	72.9%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청렴도	국민권익위	7.36점	도정 신뢰인식	4.8
	정보공개율	안행부	97.2%		
9.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	-	-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6.0
				긍정적 정서 감정 정도	6.2
• 정서경험	-	-	-	부정적 정서 감정 정도	4.7
				심리적 웰빙의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	6.5
• 성격 측정	-	-	-	외향성(결과분석서시 통제변수로 활용)	6.0

자료 : 고승희 등(2016: 12-13; 66-68)의 재구성

전북형 행복지표(2017)

- 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와 20여 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행복지표 선정
- 최종적으로 선정된 전북형 행복지표(안) 체계는 7개 분야, 50개 세부지표로 구성
 - 국내·외 행복지표* 분석을 통해 공통영역과 공통지표 등 빈도가 높은 지표를 추출한 후 원탁회의 결과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 선정

* UN, OECD, 영국, 서울, 충남, 강원 등

- 원탁회의에서 도출한 분야 중 유사·중복의 것을 합치거나 포함하는 방식으로 축약하여 분야의 수를 7개로 설정
- 하나의 분야는 7~8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3월 전라북도 14개 시·군 거주 주민 약 천 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세부지표의 우선순위를 설문하여 개별 지표에 대해 가중치* 산정

* 연구보고서에 지표별로 제시된 값은 분야 내에서 이들 값의 총합이 1인 것으로 나타나 개별 지표에 대한 가중치로 판단되며, 이는 '분야 내 세부지표 순위 평균 역수의 총합'에서 '분야 내 해당 세부지표 순위 평균의 역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할 수 있음

$$** \text{세부지표 가중치 산식} = \frac{1}{\text{분야 내 해당 세부지표의 순위 평균}} \div \sum \frac{1}{\text{분야 내 세부지표의 순위 평균}}$$

- 7개 분야와는 별도로 주관적 행복도 분야에 대해 조사 실시

* ① 행복감(10년 전, 현재, 10년 후) ②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③ 분야별 만족도(나의 가치, 삶의 성취도, 미래의 희망,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이웃에 대한 신뢰도, 취업의 기회, 안전의 정도, 생활환경 등) 등의 항목으로 구성

- 세부지표별로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전북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지표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대리지표를 선정

■ 전북형 행복지표(안) 구성체계 및 지표별 통계치 ■

분야별 세부지표(대리지표, 단위)	통계치		자료원(기준연도)	우선순위
	항 목	전북(A) 전국(B) A-B		
1. 경제적 만족				
• 월평균 가구소득(연 기구소득, 만 원)	-	-	-	.195 2
• 월평균 생활비(소비자물가지수, %)	4,111	4,883 -77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206 1
• 가계부채 규모(만 원)	100.54	100.97 -0.43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2016)	.193 2
• 주관적 소득수준(%)	4,254	6,655 -2,40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136 5
	여유	7.2 8.3 -1.1	통계청, 사회조사(2015)	.138 4
	적정	30.2 27.0 +3.2		
	모자람	62.6 64.7 -2.1		
• 계층 의식(%)	0.7	2.4 -1.7	통계청, 사회조사(2015)	.100 6
	중	54.5 57.9 -3.4		
	하	44.8 39.7 +5.1		
• 계층 이동성(%)	24.8	22.8 +2.0	통계청, 사회조사(2015)	.081 7
	낮음	56.7 61.3 -4.6		
	모름	18.5 15.9 +2.6		
• 소득 만족도(%)	10.1	11.4 -1.3	통계청, 사회조사(2015)	.147 3
2. 사회 문화적 만족				
• 여가활동 횟수(여가활동빈도, %)	-	-	-	.144 3
	매일	96.5 84.5 +1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16)	.188 1
•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회)	58.1	66.8 -8.7	통계청, 사회조사(2015)	.132 5
	평균횟수	8.0 8.4 -0.4		
• 문화여가시설 개수(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개소)	7.97	5.04 +2.9	통계청, e-지방지표(2015)	.130 6
• 문화여가비용(%, 천원)	48.8	61.6 1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2014)	.130 6
	9만 원 이상	131 130 +1		
	평균			

분야별 세부지표(대리지표, 단위)	통계치			자료원(기준연도)	우선순위		
	항 목	전북(A)	전국(B)			A-B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만족	20.2	26.0	-5.8	통계청, 사회조사(2015)	.168	2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	경험 있음	55.4	52.0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2015)	.138	4
• 예술행사 만족도 (인구 십만 명당 문화예술, 공연예술 회수, 회)	공연예술	100.3	244.2	-143.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2015)	.090	7
• 예술행사 만족도 (인구 십만 명당 문화예술, 공연예술 회수, 회)	문화예술	79.1	65.4	+13.7			
3. 건강 만족						.215	1
• 스트레스 정도(%)	많이 느낌	4.6	4.9	-0.3	통계청, 사회조사(2016)	.164	1
	느끼는 편	45.9	49.9	-4.0			
	느끼지 않음	49.5	45.2	+4.3			
• 자살충동 정도(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		26.6	26.5	+0.1	통계청, e-지방지표(2015)	.078	8
•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좋음	51.5	47.2	+4.3	통계청, 사회조사(2016)	.147	3
• 음주량·흡연량(%)	음주	55.7	65.4	-9.7	통계청, 사회조사(2016)	.096	7
	흡연	18.6	20.8	-2.2			
• 건강관리 실천(%)	아침 식사	73.1	67.2	+5.9	통계청, 사회조사(2016)	.164	2
	적정 수면	81.8	77.2	+4.6			
	규칙적 운동	34.2	38.0	-3.8			
	건강검진	64.5	60.7	+3.8			
• 의료시설 수(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개소)		19.46	12.69	+6.77	통계청, e-지방지표(2014)	.115	6
• 의료서비스 이용률(%)	이용함	76.7	77.8	-1.1	통계청, 사회조사(2016)	.118	4
•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	만족	57.2	53.3	+3.9	통계청, 사회조사(2016)	.118	5

분야별 세부지표(대리지표, 단위)	통계치		자료원(기준연도)	우선순위
	항 목	전북(A) 전국(B) A-B		
4. 사회적 관계 만족	-	-	-	.135 4
•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 59.8	56.5 +3.3	통계청, 사회조사(2016)	.238 1
• 직장관계 만족도(%)	만족 37.5	35.6 +1.9	통계청, 사회조사(2015)	.155 3
• 친구관계 만족도(%)	만족 62.2	68.8 -6.6	통계청, 사회조사(2016)	.187 2
• 지역민의 정체감(도민으로서의 자부심, %) 그렇다	32.9	-	전라북도, 전라북도사회조사(2014)	.106 6
• 사회적 관계망 정도(%)	집안일 부탁 75.6	76.8 -1.2	통계청, 사회조사(2015)	.114 5
	돈을 빌림 50.0	50.1 -0.1		
	이야기 상대 83.1	82.4 +0.7		
• 자원봉사 참여율(%)	17.8	18.2 -0.4	통계청, 사회조사(2015)	.074 7
• 부모부양 태도(%)	스스로 해결 24.3	18.6 +5.7	통계청, 사회조사(2016)	.126 4
	가족 22.7	30.8 -8.1		
	가족, 정부, 사회 46.8	45.5 +1.3		
	정부, 사회 6.1	5.1 +1.0		
5. 보건복지서비스 만족	-	-	-	.119 5
• 보육시설 만족도(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개소)	21.37	18.64 +2.73	통계청, e-지방지표(2016)	.126 5
•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	만족 57.2	53.3 +3.9	통계청, 사회조사(2016)	.187 1
• 복지서비스 만족도(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개소)	17.54	13.49 +4.1	통계청, e-지방지표(2015)	.171 2
• 사회보장 만족도(사회보장제도 여간변화, %)	좋아짐 50.2	48.5 +1.7	통계청, 사회조사(2015)	.158 3
	준비됨 58.0	65.3 -7.3	통계청, 사회조사(2015)	.157 4
• 노인복지서비스 만족도(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개소)	14.94	6.86 +8.1	통계청, e-지방지표(2015)	.111 6
• 사회복지시설 수(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개소)	17.54	13.49 +4.1	통계청, e-지방지표(2015)	.089 7

분야별 세부지표(대리지표, 단위)	통계지			자료원(기준연도)	우선순위
	항 목	전북(A)	전국(B) A-B		
6. 지역사회안전 만족	-	-	-		.092 7
• 주거만족도(주택만족도, %)	만족 32.8	30.3	+2.5	전라북도, 전라북도사회조사(2004)	.215 1
• 현재 체감환경(%-좋은)	녹지 환경 45.6	41.2	+4.4	통계청, 사회조사(2016)	.153 2
	대기 43.1	31.7	+11.4		
	소음, 진동 36.2	27.5	+8.7		
	수질 45.3	33.1	+12.2		
	토양 38.3	29.3	+9.0		
• 환경문제 인식(%-불안)	기후변화 61.7	62.8	-1.1	통계청, 사회조사(2016)	.134 4
	농약, 비료 사용 55.5	54.5	+1.0		
	화학물질 유출 59.9	65.3	-5.4		
	황사, 미세먼지 79.6	79.3	+0.3		
• 주택시세 적절성(주택가격 상승률, %)	0.09	0.71	-0.6	통계청, e-지방지표(2016)	.130 5
• 주택가격(%)	전세가격지수 101.4	103.5	-2.1	통계청, e-지방지표(2016)	.141 3
	매매가격지수 100.5	102.4	-1.9		
• 범죄발생 건수(%)	검거율 88.8	80.6	+8.2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2015)	.112 7
• 대중교통 접근성(%-대중교통접근시간)	5분 미만 15.3	14.9	+0.4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2015)	.116 6
	5~10분 49.3	43.8	+5.5		
7. 근로(교육)환경 만족	-	-	-		.100 6
• 고용안정성(%)	불안하지 않음 39.7	39.0	+0.7	통계청, 사회조사(2015)	.185 1
• 월평균 근로소득(연 가구소득, 만 원)	4,111	4,883	-77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6)	.179 2

분야별 세부지표(대리지표, 단위)	통계치			자료원(기준연도)	우선순위 값 순위	
	항 목	전북(A)	전국(B)			A-B
• 좋은 일자리 인식(%-직업선택요인)	명예, 명성 안정성 수입 직상 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 잠재성	2.6 31.8 37.7 13.7 4.8 5.9	2.6 28.0 38.8 16.7 5.4 5.4	0 +3.8 -1.1 -3.0 -0.6 +0.5	통계청, 사회조사(2015)	.167 3
• 고용률·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59.4 2.1	60.4 3.7	-1.0 -1.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6)	.129 5
• 취업의 어려움		-	-	-		.130 4
• 직업(학교생활) 만족도(%)	만족	26.7	25.2	+1.5	통계청, 사회조사(2015)	.121 6
• 월평균 교육비(만 원)	공교육비-대학 사교육비-중등	140.69 37.53			전라북도, 전라북도사회조사(2013)	.089 7

주 : 7개 분야 각각의 순위는 이틀 분야 간 우선순위 값이고, 세부지표의 순위는 분야 내에서의 우선순위 값을 의미
 자료 : 김동영 등(2017: 63-157)의 재구성

▣ 전북형 행복지표(안)의 주관적 행복도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 ▣

세부지표	항 목	결과치
1. 행복감(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	• 10년 전	75.0
	• 현재	74.0
	• 10년 후	77.9
2.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백분율)	• 없음	2.4
	• 있음(사람 수)	97.6(평균 9.0명)
3. 분야별 만족도(1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	• 나의 가치	7.9
	• 삶의 성취도	7.4
	• 미래의 희망	7.5
	• 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	6.7
	• 이웃에 대한 신뢰도	6.6
	• 취업의 기회	6.6
	• 안전의 정도	6.9
	• 생활환경	7.2

자료 : 김동영 등(2017: 58-62)의 재구성

제주 행복지표(2017)

- 행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이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정량적 지표를 통해 분석
- 최종적으로 선정된 제주 행복지표(안) 체계는 6개 영역, 21개 세부지표로 구성
 - 다양한 사례*의 지표들을 취합한 결과 ① 정신 ② 건강 ③ 취업률 ④ 경제 ⑤ 가족 ⑥ 주위관계 ⑦ 사회생활 ⑧ 교육 ⑨ 시간활용 ⑩ 문화 ⑪ 주거 ⑫ 환경 ⑬ 범죄 및 재난 ⑭ 시민참여 등 모두 14개 영역들이 주로 나타남
 - * OECD Your better life index, 신경제재단의 행복한 지구지수, UNDP 인간개발지수, 캐나다 웰빙지수, 부탄 국민 총행복지수, 일본 신국민 생활지수, 홍콩의 삶의 질, 호주 웰빙지수, 한국의 행복지수, 서울시민 행복지수(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 전북도민 행복지수, 인천 부평구 행복지표, 경남 하동군 행복지수, GDP는 틀렸다, 문화여가 행복지수 등
 - 이들 14개의 영역을 제주도에 맞게 ① 개인적 ② 사회적 ③ 교육·문화적 ④ 생활·환경적 ⑤ 참여 ⑥ 안전 등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21개의 세부 지표로 재분류
 - 주관적인 설문조사 방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행복지수 분석이 가능한 지표만을 선정하여 전국 및 제주도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해 표준화지수를 산출하고 AHP 설문으로 영역과 세부지표에 대해 가중치 산정
 - *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관련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설문조사 실시
- 21개 세부지표에 대해 다른 시·도와 비교를 시도하여 제주도민의 행복도 위치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 6개 영역별로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 각각의 표준화지수에 AHP 설문 결과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해 이들 값을 합산하여 그 결과를 다른 시·도와 비교
 - * 개인적 행복(4위), 사회적 행복(3위), 교육·문화적 행복(4위) 등의 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생활·환경적 행복(13위), 안전의 행복(15위), 참여의 행복(11위)은 낮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냄
 - 6개 영역별 표준화지수를 합산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순위는 9위로 나타남
 - * 행복지수에 대한 시·도별 결과 종합은 전체 지표의 표준화지수를 합계·계산함. 단, 지표의 합산 과정에 조이혼율, 자살률, 범죄율 등 부정적 지표에 대해서는 값이 낮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지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지표들은 절대값을 변환·조정하여 합산·계산함

■ 제주 행복지표(안) 구성 체계 및 지표별 시도 비교

영역	세부지표	통계치	자료원(기준연도)	AHP 결과		17개 시도 비교	
				가중치	순위	표준화지수	순위
1. 개인적 행복							
건강	• 평균수명(기대여명)	82.08세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4)	.062	6	.696415	
	• 65세 이상 인구비율	13.76%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5)	.042	9	-.05103	
	•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4.5%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5)	.064	5	.44943	
경제	• 1인당 지방세	1,800,251원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	.037	14	-.17688	
2. 사회적 행복							
가족	• 조이혼율	0.2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31	17	-.4642808	
사회생활	• 경제활동참가율	69.2%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5)	.050	8	.341195*	
	• 실업률	1.9%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5)	.091	2	.88841*	
3. 교육·문화적 행복							
교육	• 교원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14.36명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041	10	.4698108	
	• 교원 1인당 학생 수(중·고등학교)	15.21명	행정자치부, 한국도시통계*	.030	18	.3891207	
	• 7세 이하 인구 1인당 유치원 수	8.48명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038	13	1.1777408	
문화	• 지정 등록 문화재 수	222건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012	21	-.99433	
	•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 명당)	13.3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014	20	.075571	
4. 생활·환경적 행복							
주거	• 주택보급률	100.7%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5)	.099	1	-.800009	
	•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	95.71%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039	12	.170664	
환경	• 산림면적	88,874ha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5)	.041	11	-.1456525	

영역	세부지표	통계치	자료원(기준연도)	AHP 결과		17개 시·도 비교	
				가중치	순위	표준화지수	순위
5. 안전의 행복							
범죄 및 재난	• 범죄율(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건수)	54.16건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5)	.081	3	-2.6424549*	
	•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	889.45명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2015)	.032	16	-.24692	
	• 화재발생률(인구 천 명당)	0.097%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030	19	-.05823	
	• 교통사고 발생률	1.068%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054	7	.205308	
6. 참여의 행복							
시민참여	• 전국 투표율	57.2%	통계청(20대 총선 기준)	.078	4	-.342256	
	• 축제 방문 경험	65.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034	15	.1193978	

주 : ¹ 보고서 원문에서 제시되지 않아 단위와 기준연도를 알 수 없는 통계치와 자료원에 대해서는 별표(*)로 표시

² 6개 영역 AHP 가중치 순위는 이들 영역 간 순위이고, 세부지표의 순위는 21개 전체 지표 간 순위를 의미

³ 6개 영역 표준화지수의 순위는 해당 영역 내 세부 지표 각각의 표준화지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한 값에 대한 17개 시·도에서의 순위를 의미

자료 : 강창민 등(2017: 52-94)의 재구성

2. 국외 사례 : 일본 구마모토현의 총행복량(AKH) 지수

가바시마 현정의 출범과 행복한 지역정책의 추진

- 2018년 현재 3기째 구마모토현 지사에 재임 중인 가바시마 이쿠오(蒲島郁夫)는 2008년 4월에 취임한 이래 구마모토현을 현민들이 일본에서 가장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현민들의 총행복량을 최대화하는 데 역점을
 - 임기 첫 해 현정(縣政) 운영의 기본 방침인 <구마모토의 꿈* 4개년 전략(2008-2011)>을 수립
 - * '구마모토의 꿈'이란 현민들이 '구마모토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구마모토에 살아서 좋았다, 앞으로도 구마모토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의 실현을 의미(熊本県, 2009: 7)
- 현정의 방향은 가바시마가 2012년 3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적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고, 같은 해 6월 <행복체감 구마모토 4개년 전략(2012-2015)>을 마련해 행복한 지역발전 구상을 구체화
 - 이 전략에서는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체감하고 정든 지역에서 꿈을 갖고 자부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구마모토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熊本県, 2012: 7)
- 가바시마가 3선으로 당선된 다음 달인 2016년 4월에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하였고, 같은해 12월에 <구마모토 복구·부흥 4개년 전략(2016-2019)>을 새로운 현정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책정
 - 이 전략은 2015년 10월에 수립한 <구마모토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과 일원화하였으며, '현민들의 총행복량 최대화'를 기본 이념 가운데 하나로 설정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표명

현민 총행복지수 최대화를 위한 지사의 정책 의지와 리더십

- 가바시마 지사는 도쿄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자신의 고향 구마모토가 1조 2천억 엔의 부채로 곤경에 처하자, 역경에 빠진 고향을 되살리기 위해 안정된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사 선거에 출마

- ‘역경 속에서 꿈을 갖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사에 당선되었으며, 지사 취임 후에는 자신의 월급 124만 엔에서 100만 엔을 스스로 삭감
 - * <역경 속에 꿈이 있다>는 가바시마 지사(蒲島郁夫, 2008)가 출간한 에세이로서, 학창 시절 꼴찌였던 사람이 농협 직원, 미국에서의 농장 일과 농학 공부,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 도쿄대 교수를 거쳐 구마모토현 지사가 되기까지 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회고한 지사의 드라마틱한 삶을 대변하는 메시지가기도 함
-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봉급이 중요하다며 지사로서 이 문제에 신경 쓸 테니 안심하며 열심을 다해 공무에 임할 것을 당부
- 자기 자신은 헌신하면서도 직원들의 복지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로 평가
- 가바시마 지사는 1기 재임 시절부터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왔음(熊本県企画振興部, 2012: 9-10)
 - 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의미
 - ②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 지금까지의 행정이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 것이었다고 지적하며, 물론 그것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지나친 신중함이 갖는 함정을 경계
 - ③ 국가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 잘 안되면 남 탓 하지 말라는 의미이면서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함
 - * 중앙정부에 기대면 지방이 자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가의 정책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좋은 정책을 만들어 중앙정부에서도 배워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임할 것을 당부
 - ④ 다른 현과 비교하지 말라 : 구마모토현의 지역발전 수준이 일본 전체에서 대체로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안주할 수 있음을 주의
 - * 이 말의 다른 의미는 구마모토현이 모델로 하는 지역은 일본에 없으며, 대신 경제발전과 사회복지가 조화롭고 주민들의 정치적 신뢰도가 높은 북유럽 국가를 모델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함(熊本県企画振興部, 2012: 9-10)

- 가바시마 지사는 현정의 목표로 설정한 ‘현민 총행복지수의 극대화’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1월 지사 직속으로 행복부를 설치하고 ‘쿠마몬’을 부장으로 임명
 - 쿠마몬*은 뉴욕과 파리 등 세계적인 도에 방문해 구마모토현을 알리기도 했으며, 일본 내에서는 각종 방송 출연과 지역 행사 참석을 통해 구마모토현이 추진하는 행복한 지역발전정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 쿠마몬은 구마모토(熊本) 이름에 들어간 ‘쿠마[熊]와 지역 방언인 ‘몬’(사람)을 합성한 용어로 구마모토현이 개발한 곰 캐릭터로서, 쿠마몬이 찍힌 상품은 일본 전역으로 판매되면서 지역의 인지도를 올리는 등 지역캐릭터로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 행복부장 직무실에서 쿠마몬을 만나기 위해서는 쿠마몬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스케줄을 미리 확인해야 할 정도로 매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
- 가바시마는 쿠마몬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현민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2의 쿠마몬을 찾자’*고 구마모토현 공무원들에게 제안
 - * 새로운 캐릭터를 또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쿠마몬과 같은 효과적인 행복정책을 발굴하자는 의미

■ 기자 회견 중인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현 지사와 쿠마몬 행복부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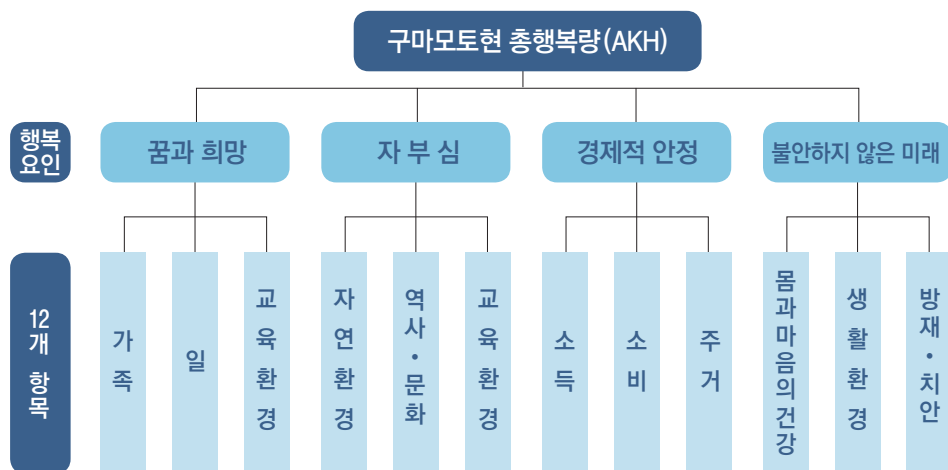


자료:연합뉴스(2018)

AKH 지수의 개발과 지표 체계

- 위와 같은 현정 실천의 일환으로 현민들의 총행복량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AKH’(Aggregate Kumamoto Happiness), 곧 ‘구마모토헌 총행복량’을 지수화하여 해마다 산출
 - AKH 지수는 구마모토학원대학(熊本学園大学)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구마모토 행복 지수연구회’*가 2011년 7월 지사에게 제출한 <현민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
 - * 2010년 10월에 설치되어, 이후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더불어 행복지수의 지표화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熊本学園大学, 2012: 1)
 - ** 의견서에 제안된 행복도 지표안은 2008년에 수립된 <구마모토의 꿈 4개년 전략>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서 오늘날 AKH 지표체계와 동일한 4개 부문, 12개 항목 등으로 구성(熊本幸福量研究会, 2011: 3-4)
 - 연구회의 의견서를 접수한 구마모토헌은 5개월 후인 12월에 AKH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이듬해 가바시마의 2기 현정이 출범하면서 이 조사의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지사가 공식적으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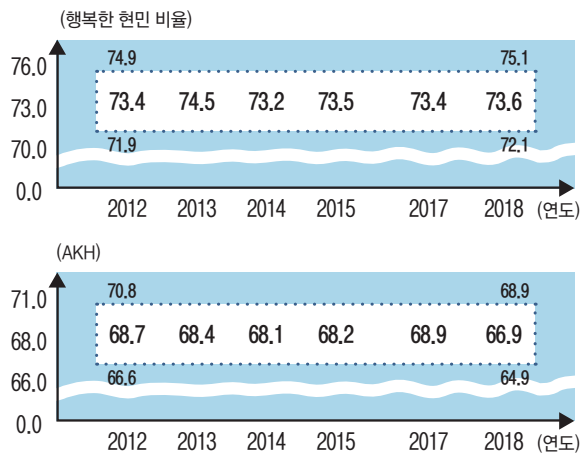
AKH 지표 체계의 구성



자료 : 熊本県(2018b: 1)의 재구성

- AKH 지수는 행복의 요인을 ‘꿈과 희망’, ‘자부심’, ‘경제적 안정’, ‘불안하지 않은 미래’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 요인은 다시 3개 항목으로 구체화
 - 모든 항목마다 ‘느끼지 않음 1점’에서 ‘느낌 5점’까지 5점 척도로 설문을 통해 12개 항목 각각에 대해 평균을 산출하여 만족도를 측정
 - 이러한 5점 척도의 설문 방식은 전반적인 행복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이 아닌 각 수준에 대한 비율만을 산출하였고 ‘약간 느낌’과 ‘느낌’을 묶어 전체 대비 구성비를 합계 내는 방식으로 행복한 현민의 비율을 파악
 - 2018년에 실시한 AKH 조사에서 ‘당신은 현재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라는 물음에 대해 ‘약간 느낌’과 ‘느낌’이 각각 39.9%와 33.7%의 비중을 보였는데, 이를 토대로 행복한 현민의 비율은 이들 두 값을 합친 73.6%로 집계(熊本県, 2018a: 6)
- * 2018년 AKH 설문조사는 6월 6일부터 19일까지 구마모토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3,5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들 가운데 1,656명이 응답해 47.3%의 회수율을 나타냄
- 행복한 현민의 비율은 2011년 시범조사 때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2년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해마다 73~74%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 AKH 설문조사 주요 결과(행복한 현민 비율 및 AKH 지수, 2012~2018년) ▮



주 : ¹ 연도별 AKH 지수 그래프(하)는 熊本県(2018b: 1) 자료를 인용한 것이며, 이 그림의 형식에 따라 통계 오차 ±2%(점선의 범위)를 적용하고 실제 변동폭을 산출하여 행복한 현민 비율 그래프(상)를 표현함

² 2016년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AKH 설문조사 미실시

자료 : 熊本県(2013a: 2013b: 2014: 2015: 2017: 2018a: 2018b)

- 2011년 시범조사 때 69.5점을 나타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pm 1\%$ 미만의 변동폭을 나타내 68점대를 유지하다가 올해(2018년)에는 작년보다 2점이나 하락해 이례적으로 큰 폭의 점수변동을 나타냄
- 네 가지 행복요인에 대한 중요도 설문 문항에는 고정총합척도법, 즉 응답자에게 고정된 총합 점수를 주고 이를 평가대상에 할당하도록 설문하는 방법을 적용
 - AKH 조사에서는 고정된 총합을 10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행복 전체를 10점이라 가정했을 때 행복요인별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수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설문
 - 가령 설문응답자가 '꿈과 희망'에 3점을 주었다면 나머지 7점은 다른 행복요인에 해당하는 '자부심', '경제적 안정', '불안하지 않은 미래' 등에 할당

AKH 지수의 산출 방법과 측정 결과

- 위와 같은 조사를 통해 AKH 지수의 산출은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熊本県, 2018b: 2)
 - ① AKH를 구성하는 12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을 산출한 후 이들 값을 4개 행복요인별로 합산
 - * 각 요인에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평균을 요인별로 합계 내는 것을 의미
 - ② 4개 행복요인의 중요도에 대해 요인별로 평균을 산출
 - * 총합을 10점으로 고정하여 요인별로 점수를 할당하기 때문에 요인별 평균을 합산해도 10점
 - ③ 1단계에서 산출한 값과 2단계에서 산출한 값을 4개 행복요인별로 각각 곱함
 - * 이 단계에서 행복요인의 중요도는 결국 AKH 지수를 산출하는 데 가중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
 - ④ 3단계에서 산출한 값을 합산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3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합산할 때의 만점은 150점이 되므로 이 합계에 1.5를 나누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는데 바로 이 값이 AKH 지수에 해당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AKH 값을 산출한 결과 2018년 구마모토헌 총행복지수는 66.9점으로 측정

AKH 조사의 설문 문항 및 지수 산출 결과(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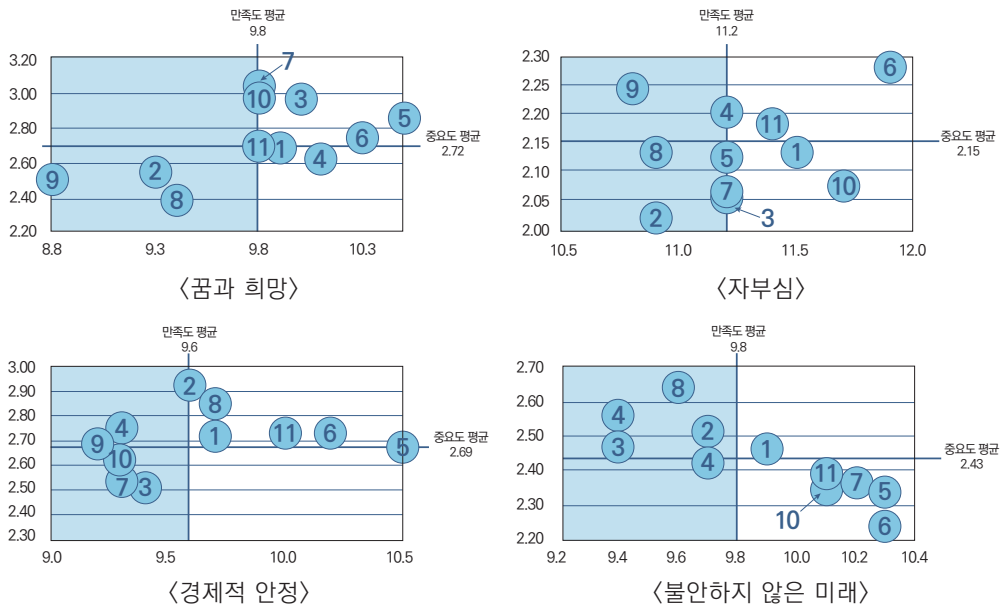
행복 요인	항목	만족도		중요도 (가중치, B)	A×B (C)	C의 합계 (D)	AKH (D×100 /150)
		설문 문항	평균				
꿈 과 희 망	가족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족을 향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				
	일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에 대한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9.8	2.72	26.7	
	교육 환경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양호한 교육환경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0				
자 부 심	자연 환경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4.1				
	역사 · 문화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3.6	11.2	2.15	24.1	
	지역 사회	•당신은 지역사회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3.5				
경 제 적 안 정	소득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9			100.4	66.9
	소비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2	9.6	2.69	25.8	
	주거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에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까?	3.5				
불안 하지 않은 미래	몸과 마음의 건강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3.1				
	생활 환경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생활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3.8	9.8	2.43	23.8	
	방재 · 치안	•당신은 거주하는 지역이 재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9				

자료 : 熊本県(2018b: 2)의 재구성

행복요인별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 진단

- 행복요인별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함으로써 지역마다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진단
 - 분석의 결과는 2차원 도면상으로 각 지역을 표시할 수 있는데, 만족도와 중요도는 각각 수평축 X(축)과 수직축 Y(축)에 해당하며 이에 대응하는 좌표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부여
 - 중심점을 기준으로 분할된 4사분면 가운데 결과값의 좌표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가 결정
 - 현이 해마다 발표하는 <AKH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좌표와 좌표의 중심점을 각각 만족도의 평균과 중요도의 평균으로 설정
 - 이러한 방법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 영역에 속한 지역들을 정책의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구마모토현 내 11개 지역에 대한 AKH 행복요인별 중요도-만족도 분석(2018년)



주 : ¹ 음영으로 표시된 2사분면과 3사분면은 해당 행복요인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은 영역으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² 위 그래프에서 표기된 각 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음

- ① 구마모토(熊本) ② 우키(宇城) ③ 다마나(玉名) ④ 가모토(鹿本) ⑤ 기쿠치(菊池) ⑥ 아소(阿蘇) ⑦ 가미마사키(上益城)
- ⑧ 야쓰시로(八代) ⑨ 아시키타(芦北) ⑩ 구마(球磨) ⑪ 아마쿠사(天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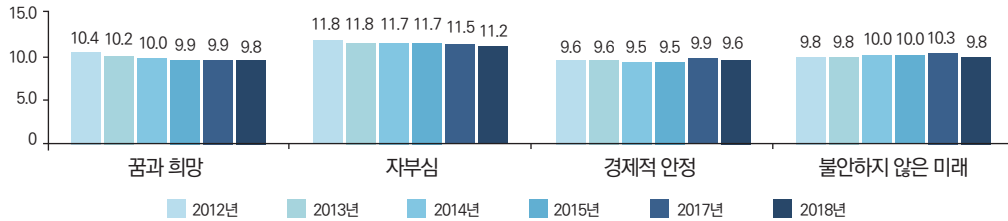
자료 : 熊本県(2018b: 3)의 재구성

- AKH 조사의 설문 인원은 2011년 시범조사 때 1,500명으로 시작했으나 2012년 표본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3,000명으로 두 배 늘렸으며 2013년부터는 지역별·연령별 등 속성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3,500명으로 증가
 - 표본은 전체 3,500명 중에서 먼저 3,000명에 대해 20세 이상 남녀 인구 구성비에 따라 시정촌별 표본수를 배분하여 무작위로 추출
 - 다음 단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진행하는데, 회수율을 50%로 가정하는 경우 최소 설문인원인 96명에 미달하는 곳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해 남은 500명의 표본을 남녀 인구비례로 추가 할당*
- * 구마모토현 내 11개 지역 중에서 우키(宇城), 가모토(鹿本), 아소(阿蘇), 가미마시키(上益城), 아시키타(芦北), 구마(球磨) 등 6개 지역은 2013년부터 해마다 표본수가 최소설문인원에 미달해 인구대비보다 더 많은 표본을 할당받아옴
- * 표본이 최소설문인원을 충족하는 나머지 5개 지역은 구마모토(熊本), 다마나(玉名), 기쿠치(菊池), 야쓰시로(八代), 아마쿠사(天草) 등임

AKH 조사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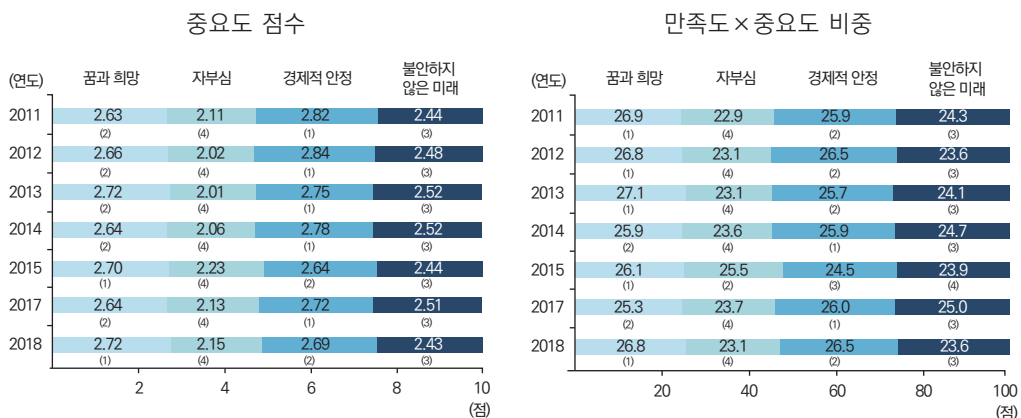
- 설문 구성이 간단명료하면서도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AKH 설문이 갖는 매력
 - 설문 문항은 전반적인 행복도를 묻는 물음 1개, 네 가지 행복요인별 중요도를 묻는 물음 1개, AKH를 구성하는 12개 항목별 만족도를 묻는 물음 12개, 그리고 행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주관식 물음 1개 등 그 수가 모두 15개에 불과*
- * 2011년 시범조사 때는 설문 수가 39개였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정확한 표현으로 질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다음 해 조사 때부터 그 수를 크게 축소(熊本県, 2013a)
- 문항 수가 많지 않음에도 AKH 조사는 지수화 산정뿐만 아니라 중요도-만족도 분석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행복요인별로 중요도와 만족도 점수가 한 요인에 치우침 없이 그 비중이 각각 비슷한 편이고 중요도와 만족도를 곱한 값도 네 가지 행복요인 모두 고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AKH 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의 선정과 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AKH 행복요인별 만족도 점수(2012~2018년)



주 : ¹ 각 행복요인의 만족도 점수는 해당 요인에 속한 항목들의 만족도 평균을 합산한 수치로, 이 값의 만점은 15점임
² 2016년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AKH 설문조사 미 실시
 자료 : 熊本県(2018b: 1)의 재구성

AKH 행복요인별 중요도 점수 및 만족도 X 중요도 비중(2011~2018년)



주 : ¹ 막대그래프 아래의 괄호 숫자는 해당 행복요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순위를 의미함
² 2016년에는 구마모토 지진의 영향으로 AKH 설문조사 미 실시
 자료 : 熊本学園大学(2012); 熊本県(2018b)

- 행복요인을 객관적 지표와 상관분석하면 시책의 효과를 행복의 관점으로 측정·평가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熊本学園大学, 2012: 60)
 - AKH 지표가 개발된 직후에 발간된<현민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지표의 작성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객관적 지표 활용의 유용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AKH 조사를 실시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러한 분석이 이루어진 일은 없었음
 - 보다 발전적인 AKH 조사를 위해서는 구마모토현 차원에서 AKH 행복요인에 적합한 객관적 지표를 선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Ⅲ 도민행복지표 체계의 개발

1. 분야 및 영역의 설정

영역의 추출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영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8개 시·도의 행복지표뿐만 아니라 중앙 차원의 지표체계로 ①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 ② 한국의 사회지표 ③ 지역사회 공통지표 ④ 지역발전위원회의 주민행복도 지표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 ①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09년부터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2011년에 삶의 질 기본틀 및 지표를 개발

* 삶의 질 지표는 4개 영역(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의 물질 부문과 8개 영역(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의 비물질 부문 등 12개 영역, 그리고 56개의 객관적 지표와 24개의 주관적 지표 등 총 80개 지표로 구성

- ② 한국의 사회지표는 현재의 사회 상태를 종합적·체계적·균형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역할을 하며, 사회구조변화나 관심분야를 파악해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 및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1979년에 128개 지표를 작성해 최초로 공표한 이후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에 따라 1987년, 1995년, 2004년 3차례 걸쳐 사회지표 개편을 통해 체계를 개선

* 저출산·고령화, 사회통합, 다문화가구, 공정사회 구현 등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동 및 국민의 신규 관심영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2012년에 4차로 지표체계가 개편되었고, 그 결과 <2017 한국의 사회지표>는 11개 부문의 총 278개 통계표로 구성

- ③ 통계청은 시·도별로 작성하고 있는 지역사회지표가 상호 간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 문제를 인식하고,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사회 공통지표'를 제안

* 통계청(2013)이 발간한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에는 54개의 핵심지표와 45개의 참고지표 등 모두 99개의 지역사회 공통지표가 제시

-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공간 단위로 매년 행복도조사를 실시
 - * 주민행복도 지표 체계는 2014년 기준으로 12개 부문에 대해 객관적 정량지표로서 30개의 승인통계 지표와 주관적 정성지표로서 16개의 만족도 지표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과 2016년에는 42개의 객관적 지표와 12개의 만족도 지표로 재편하여 행복도조사 실시
 - * 행복도조사의 표본수는 2014년 시범조사 때 6,695명을 시작으로 2015년 20,020명, 2016년 25,000명 규모를 나타냄
- 위와 같은 기존의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공통 영역을 검토한 결과, ① 가족 ② 일 ③ 교육 ④ 환경 ⑤ 공동체 ⑥ 주민참여 ⑦ 소득·소비 ⑧ 주거 ⑨ 문화여가 ⑩ 안전 ⑪ 의료·복지 ⑫ 교통·인프라 등 모두 12개의 영역을 추출

분야의 설정 및 영역 분류

- ‘영역’의 상위 체계에 해당하는 ‘분야’는 행복의 구성 요인으로 ① 희망이 있는 미래 ②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③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삶 ④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등으로 설정
 - 행복의 요인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제시한 구마모토현의 AKH 지수체계를 벤치마킹
- ‘가족’, ‘일’, ‘교육’ 등의 영역을 ‘희망이 있는 미래’ 분야에 분류
 - 한 개인이 미래에 희망이 없거나 절망 가운데 놓여있다면 이는 곧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희망이 있는 미래’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
 - *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쇠렌 키르케고르가 저술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곧 ‘절망’을 의미
 - ‘가족’, ‘일’, ‘교육’ 등의 세 영역은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의 요소로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 ‘환경’, ‘공동체’, ‘주민참여’ 등의 영역을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분야에 분류
 -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자존감 속에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스스로 긍지를 갖는 '자긍심'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과 연결되며, 제주도의 민선 7기 도정 비전에서도 '제주인의 자긍심'이라는 표현으로 언급
- 제주도는 민선 7기 도정 비전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로 설정할 만큼 자연환경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
 - * 청정과 공존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와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실현을 위해 도민이 선택한 미래 비전의 핵심 가치
 - *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며 보전과 지혜로운 이용으로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도정 비전의 내용으로 제시
-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이 높은 사람은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며 주민으로서 참여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공동체'와 '주민참여'의 영역을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분야에 포함
 - *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동네효과(community effect : 일정 지역 안에 공동체성이 강화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회문화적 영향)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에서의 그룹활동, 문화생활을 위한 어울림, 자원봉사활동, 지역애착의 요소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들 요인이 주민의 행복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종수, 2018)
- '소득·소비', '주거', '문화여가' 등의 영역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삶' 분야에 분류
 - 경제적 중요함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소득계층의 소득 향상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 이스털린의 역설 등을 포함한 여러 행복 연구의 결과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이 곧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
 -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며 행복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 본고에서는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행복의 요인으로 파악
 - '소득·소비', '주거', '문화여가' 등의 영역이 '경제적·문화적 안정'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야에 분류
 - * 김병섭 등(2015a)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주거 관련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시민의 행복 수준도 더 높아진다는 점을 검증

- ‘안전’, ‘의료·복지’, ‘교통·인프라’ 등의 영역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분야에 분류
 -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행복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포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불안한 환경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이러한 요소들을 없애가면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음
 - 제주도는 민선 7기의 정책 방향 가운데 하나로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안심·편안한 제주사회 구현’을 제시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체계의 12개 영역 가운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분야에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영역으로는 ‘안전’, ‘의료·복지’, ‘교통·인프라’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제주형 도민 행복지표 4대 분야별 유사 지표체계의 영역 분류

영역 구분	삶의 질 지표 (통계청)	한국의 사회 지표(통계청)	지역사회공동행복도 조사 (지역발전위)	서울형 행복지표 (지역발전위)	대전형 행복지표	세종 행복지표	강원 행복지표	충청북도민 행복지표	충남도민 행복지표	전북형 행복지표	제주 행복지표
1. 희망이 있는 미래	·가족 ·일자리 ·교육 ·고용·임금	·일자리 ·인적역량 (교육)	·산업 ·교육	·고용·노동·임금 ·관광업에너지 ·교육·문화·과학	·경제적 안정 ·교육·문화 영역	·고용·노동·임금 ·관광업에너지 ·교육·문화·과학	·가족 ·공동체 ·교육 학습	·일자리 ·소득·소비 ·가족 ·공동체 ·교육	·근로(교육) ·환경 만족 ·교육문화적 행복(교육)	·사회적 행복 (가족·사회생활) ·교육문화적 행복(교육)	
2.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환경 ·공동체 ·주민참여 ·환경	·사회관계	·환경 ·주민 참여	·공공체 협력 ·삶의 질의 도시 기반 (안전, 환경, 교통)	·생활기반· 환경 영역	·환경	·주민참여 ·신뢰 ·환경 ·가족 ·공동체	·가족·공동체 ·환경 ·주민참여	·사회적 관계 만족	·생활·환경적 행복(환경) ·참여의 행복 (시민참여)	
3.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삶	·소득·소비 ·주거 ·문화·여가 ·고용·임금 ·주거 ·문화·여가	·경제 ·거주환경 (주거환경) ·문화·시간	·주택 ·경제 ·문화	·고용·노동·임금 ·물가·가계 ·건설·주택·토지 ·도소매서비스 ·교육·문화·과학	·경제적 안정 ·주거·안전 ·문화·여가	·경제적 안정 ·주거·안전 ·문화·여가	·경제적 안정 ·주거·안전 ·문화·여가	·경제적 안정 ·주거·고통 ·일자리 ·소득·소비 ·문화·여가	·경제적 만족 ·사회문화적 만족	·개인적 행복 (경제) ·생활·환경적 행복(주거) ·교육 문화적 행복(문화)	
4.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안전 ·의료·복지 ·교통 ·인프라	·건강·안전 ·거주환경 (교통)	·안전 ·교통 ·복지 ·생활 ·인프라	·건강과 주거 ·삶의 질의 도시 기반 (안전, 환경, 교통)	·사회복지 영역 ·의료·보건 영역 ·생활기반 ·환경 영역	·보건·사회복지 ·교통·정보통신	·건강·보건 ·주거·안전	·주거·교통 ·건강·보건 ·서비스 만족 ·지역사회 안전 만족	·건강 만족 ·보건복지 서비스 만족 ·지역사회 안전 만족	·개인적 행복 (건강) ·안전의 행복 (범죄 및 재난)	

주 : 같은 지표체계 내에서 2개 이상 중복된 영역의 경우 해당 영역에 밑줄로 표시

2. 영역별 세부지표의 선정

12개 영역별로 3개씩, 총 36개 세부지표 선정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
 - 첫째, 12개 각 영역이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에 부합하고 분야 및 영역별로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되 상호 지표 간에 상관성이 적도록 선정
 - 둘째, 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
 - 셋째, 신뢰성이 높은 통계자료에 근거하며 자료 수집 및 지표 측정에 시간과 비용, 전문성의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선정
- Hollander(2002)가 제시한 지표의 선정 원칙을 준용하여 행복지표를 선정
 - 지표의 선정 원칙 가운데 하나인 '비교가능성'을 충족하는 지표의 선정은 타 시·도와 의 비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진단·파악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함
 - 또한 지표의 선정 원칙 가운데 하나인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여 행복지표 측정을 위한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지표 즉 국가기관 또는 도에서 발표하는 다양한 공식통계를 자료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지향

* 지역사회지표의 선정 원칙(Hollander, 2002; 통계청, 2013 : 37에서 재인용)

- ① 타당성(validity) : 양질의 자료에 기초해 정확하게 실제 상황을 묘사
- ② 적절성(relevance) : 지역사회의 중요한 쟁점을 적절하게 반영
- ③ 일관성과 신뢰성 : 신뢰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
- ④ 측정가능성 :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료가 획득 가능해야 함
- ⑤ 명료성 :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야 함
- ⑥ 포괄성 : 쟁점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제시하고, 추가 지표의 필요성을 줄여야 함
- ⑦ 비용 효과성 : 자료 수집에 과도하게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함
- ⑧ 비교가능성 :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 가능해야 함
- ⑨ 미디어 친화성(attractiveness) : 언론매체가 다루기 좋게 만들어야 함

- 위와 같은 지표 선정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개 영역별로 3개씩, 총 36개의 세부지표를 선정
 - 앞에서 살펴본 8개 시도의 행복지표뿐만 아니라 중앙 차원의 지표로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주민행복도 지표'도 후보지표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 모든 지표에 대해 위에서 설정한 12개 영역에 재분류
 - * 한국의 사회지표와 지역사회 공통지표는 행복지표체계 구성을 위한 영역의 설정에서 비교의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이들 지표를 12개 영역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크게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분류를 통한 자료 구축의 대상에서는 제외
 - * 위의 두 지표는 자료 구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도민행복지표의 후보군으로 검토하였으며, 시도 단위의 자료 획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통계청의 사회조사(10개 부문으로 구성, 5개 부문씩 격년 주기로 조사 실시)도 추가적으로 검토

희망이 있는 미래

- '가족'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가족 관계 만족도', '조이혼율', '한부모 비율' 등을 선정
 - '가족 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가족생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
 - 결혼 생활은 당사자인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이혼율' 지표를 선정
 - * 성공적인 결혼은 자녀들의 행복에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학업 중단, 정서 불안, 불손한 언행, 탈선 등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Forehand et al., 1997; Gohm et al., 1998; Hom, 2006; Russek & Schwartz, 1997; Wilson, 2002)
 - * 이정전(2008)도 양친의 집중적 육아가 자녀를 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양육하도록 돕는다는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있음을 들면서, 화목한 가정이 자녀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이타심을 길러주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되므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일은 개인 또는 사회적으로 큰 이익임을 역설
 - 한부모 가구 구성원은 소득의 상실에 따른 빈곤의 위험, 경제활동과 가사 및 자녀양육의 병행으로 인한 한부모의 역할과중, 사회관계망 제한 등의 현실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행복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

- ‘일’의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고용 안정성’, ‘실업률’, ‘일자리 만족도’ 등을 선정
 - 단순히 취업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률’보다는, 고용의 상태에 대해 불안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고용 안정성’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실업률’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업은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히므로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 Layard(2005)는 사람들이 실직하면 불행해지는 이유에 대해 소득을 잃어서라기보다 일 자체를 잃어서라고 설명
 - * 고용률과 실업률의 분모는 각각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로 산정
 - ‘일자리 만족도’는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일’의 영역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는 핵심지표
- ‘교육’의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교육기회의 충족도’,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등을 선정
 - ‘교육기회의 충족도’는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는지를 의미하는 지표
 - * 미충족의 이유는 경제적 형편, 학교와의 거리, 입학시험 실패, 부모의 사고방식, 집안 돌봄,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 등 사적(私的) 영역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공의 영역에서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되어 중앙 및 사도의 유사지표 목록에 없음에도 새롭게 추가하여 지표 선정
 - ‘학교교육의 효과’는 개인이 학교교육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 ‘학교생활 만족도’는 사회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

『희망이 있는 미래』 분야의 유사 지표체계 비교 검토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가 족 1인 가구	○	.	.	.	○
가정 생활 : 행복감	○
가족 갈등 수준 : 만족도	○	.	.	.
가족 신뢰 : 가족 신뢰도	.	.	○
가족 폭력경험 : 만족도	○	.	.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충분성 : 만족도	○	.	.	.
가족관계 만족도 : 통계청 사회조사	○	○	.	○
가족관계 만족도 : 시·도 사회지표	.	.	.	○
가족관계 만족도 : 만족도	○	.	.	.
가족관계접촉빈도	.	.	.	○
가족도 관계 : 만족도	○
가족생활 : 만족도	○
가족생활 만족도	○
가족원 관계 만족도	○
가족접촉빈도	○
독거노인 비율	○	○	.	.	○
부모부양 태도	○	.	○
부부생활 만족도	○
부정적 가족 전이 : 만족도	○	.	.	.
부정적 일 가족 전이 : 만족도	○	.	.	.
소년 소녀 가장 비율	○	.	.	.
이혼율	○	.	.	.	○
이혼율 → 조이혼율	○	○
자아 존중감 : 만족도	○
조이혼율	○	.	○
한부모 가구 비율	○	○
한부모 비율(모자)	○	.	.	○
한부모 비율(부자)	○	.	.	○
일 GRDP(지역내총생산)	○	○
경제인구	.	○	○
경제활동인구	.	.	○	.	○	○
경제활동참가율	○	○
고용률	○	○	.	○	.	○	○	○	.	.	○
고용률·실업률	○	.	○
고용안정성	○	.	.	.	○	.	○
공유기업	.	.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고졸 이하)	○	○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대졸 이상)	○	○
교육정도별 취업자(고졸 이하)	○	○
교육정도별 취업자(대졸 이상)	○	○
근로시간 : 주당 평균	○	○
근로시간 : 하루 평균	.	.	○	○
근로여건 만족도	○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
부가가치	○	○
비농가 실업률	○	.	.	.
비정규직 비중	○	○	.	.	○
사업다양성 : 사회적 기업 고용자 수	.	.	○
사업체수 증가율	.	○	○
사업체수 : 고용·노동·임금 부문	○	○
사업체수 : 광공업·에너지 부문	○	○
산업별 총괄	○	○
산업별 취업자	○	○
생산액	○	○
서비스업조사(산업별 분류)	○	○
성별 임금격차	○	.	.	.
실업률	○	.	○	○
업무량에 따른 스트레스 : 만족도	○	.	.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	.	○
여성실업률	○	.	.	○
연구개발 조직의 연구개발 주체별 지역별 분포	○	○
유형자산	○	○
일에 대한 만족 : 행복감	○	.	.	.
일자리 기회 : 만족도	○	.	.	.
일자리만족도	○	○
일자리만족도	.	.	.	○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 만족도	○	.	.	.
자신이 하고 있는 일 : 만족도	○	.	.	.
재정자주도	.	○	○
종사자수 : 고용·노동·임금 부문	○	○
종사자수 : 광공업·에너지 부문	○	○
좋은 일자리 인식 → 직업선택요인	○	.	○
직업(학교생활) 만족도	○	.	○
직업만족 : 직업만족도	.	.	○
직업안정성 : 6개월 고용 여부	.	.	○
직장 내 스트레스 없음 : 만족도	○	.	.	.
직장 내 인관관계 만족도 : 만족도	○	.	.	.
직장관계 만족도	○	.	○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유치원 취원율	.	○	○
자녀의 친구들 수준 : 만족도	○
중학교	○	○
지역 내 교육특성상 대학진학 가능성 : 만족도	○
진학률	.	○	○
평균교육연수	○
평생교육 기반 조성 만족	○
평생교육 접근성	○
평생교육 학습 만족	○
평생교육기관 수 : 인구 만 명당	○	○
평생교육율	○
평생교육참여율	○	.	.	○
학교 학습내용 만족	○
학교교육의 효과	○	○
학교생활 만족도	○	.	.	.	○	○
학교생활 만족도	.	.	.	○
학교폭력발생율	.	.	.	○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학생의 수면시간	.	.	.	○
학습결과 만족도	○
학습내용 만족도	○
학습시간	○
학업성취도	.	.	.	○
학업수준 만족도	○
학업중단율	○

주 : ¹ 영역별 세부지표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

² 음영으로 표시한 세부지표는 시·도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내에서 행복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지표에 해당

³ 지표의 이름이 같더라도 산정 방법이 다른 경우, 이들 경우의 수만큼 세부지표를 복수 표기

⁴ 지표의 이름만으로 성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한하여 쌍점(:) 다음에 구별되는 특징을 간단히 설명

⁵ 대리지표를 사용하는 세부지표의 경우, 화살표(→) 다음에 대리지표를 표기

⁶ 상단 제목줄에서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a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b 지역발전위원회, 주민행복도 지표 ^c 서울형 행복지표 ^d 대전형 행복지표 ^e 세종 행복지표

^f 강원 행복지수 ^g 충청북도민 행복지수 ^h 충남도민 행복지표 ⁱ 전북형 행복지표 ^j 제주 행복지표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삶

- ‘소득·소비’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소득 만족도’, ‘소득 분배(지니계수)’, ‘소비생활 만족도’ 등을 선정
 - ‘소득 만족도’는 소득수준과 별도로 자신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개인의 물질적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 ‘소득 분배(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통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소비생활 만족도’는 객관적인 소비수준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인지된 경제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에 해당
- ‘주거’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1인당 주거면적’, ‘주거환경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등을 선정
 - ‘1인당 주거면적’은 적절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의 질 지표에 해당
 - ‘주거환경 만족도’는 거주계층과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또는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이나 계획에 활용 가능한 지표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에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면서 국민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로 간주
 - * ‘주택만족도’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이라면, ‘주거환경 만족도’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물리적·사회적·문화적 그리고 자연환경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
 -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양적인 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
- ‘문화·여가’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1인당 평균 독서 권수’,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여가생활 만족도’ 등을 선정
 - 여러 연구결과에서 독서 활동이 정서적·신체적 건강 및 행복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중앙 및 시·도의 유사지표 목록에 없음에도 ‘문화·여가’의 영역에 ‘1인당 평균 독서 권수’ 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여 선정

- * 독서는 공감능력을 높이고 사람과 편한 대화를 하도록 하며 새로운 일을 배우는 데 유용한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는 독서가 삶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 영국 리버풀대학교의 'Centre for Research Into Reading, Literature and Society'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도 1주일에 30분 이상 독서하는 사람이 생활만족도가 20% 이상 높고 창조적 사고 능력도 11% 높으며 우울하게 될 가능성은 28% 낮고 18% 이상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은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의 공급이 수요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지표로 판단
- '여가생활 만족도'는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 등과 같은 다른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친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유의미

소득분배지표로서 지니계수의 개념과 제주 지역에서의 적용

•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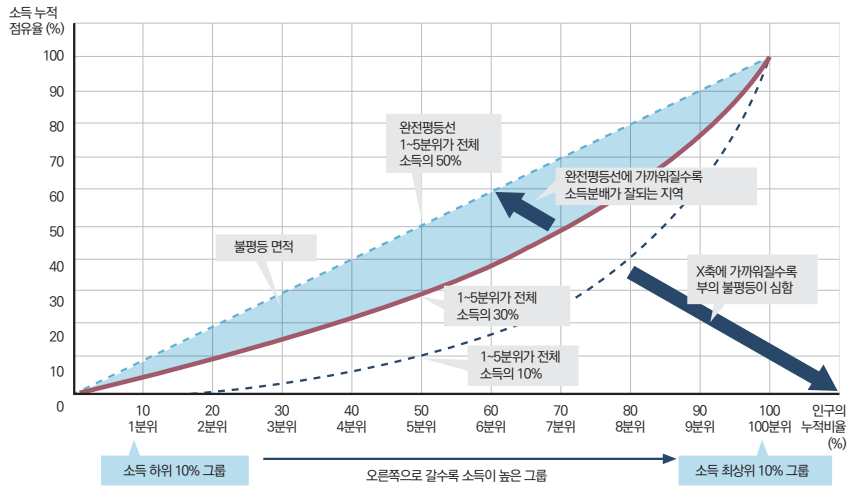
- 지니계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로서 수치는 '0'과 '1'사이의 범위 내에 있음
- '0'에 가까울수록(수치가 낮을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1'에 가까울수록(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
 - * '0'의 수치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동일한 소득을 갖는 '완전한 평등', '1'의 수치는 한 사람이 전부를 독식한 '완전한 불평등'에 해당
- 로렌츠곡선 그래프에서 x 축은 인구를 소득의 크기순으로 나열하여 누적 비율로 표시하고 y 축은 이들의 소득 누적 점유율로 표시하여 이들 좌표의 자취(로렌츠곡선)와 대각선(완전평등선) 사이의 면적(불평등 면적)을 완전평등선이 만든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 지니계수가 됨

• 국가주요지표로서 지니계수의 측정

- 통계청은 2016년부터 지니계수의 공식적인 자료로 기존에 사용해왔던 <가계동향조사> 대신 고소득층에 대한 표본 대표성이 더 높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가 권고하는 국제기준인 '균등화소득'에 맞춰 작성

- * 균등화소득은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 후생(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소득에 해당. 가령 3백만 원으로 사는 1인 가구끼리 결혼하여 2인 가구가 된 경우 동일한 후생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6백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함으로써 추가 구입 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가구 등은 공유하고 상품·서비스 구매에도 규모의 경제가 수반되어 424만 원(3백만 원×√2)만 있어도 동일한 후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
-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2016년의 지니계수를 산출하면, 기존의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0.304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0.342이고 행정자료로 보완하는 경우 0.357로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 소득분배가 더 악화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OECD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0.295로 스웨덴 0.278, 독일 0.293, 폴란드 0.292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 0.390, 영국 0.360, 호주 0.337, 이탈리아 0.333, 캐나다 0.318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냄

소득분배 상태를 알 수 있는 로렌츠곡선



• 지니계수 외의 소득분배지표

- '10분위 분배율'은 소득 하위 40% 집단의 평균소득을 상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2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됨을 의미
-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1에서 무한대(∞)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됨을 의미

*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5분위배율은 7.06배이고 근로연령층(18~65세) 가구의 5분
위배율은 6.19배로 나타남

- 중위소득* 50% 미만(빈곤선)인 가구의 비중에 해당하는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기
준으로 2016년 현재 17.9%를 나타냄

*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시·도별 소득분배 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워 국세청
(2017)의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 자료를 토대로 산출
- 국세통계의 근로소득으로 산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니계수는 0.450으로서 전국 평
균(0.462)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좋은 결과를 나타냄
- 그러나 17개 시·도와 비교했을 경우 평등한 소득분배 순위가 10위를 나타냈으며, 여건
이 유사한 9개의 도만으로 비교했을 때는 7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소득금액 규모별 인원 및 총급여 현황(2016년) ▣

단위 : 명, 백만 원, %

소득금액 규모	인원	비중		총급여	비중	
		비중	누적 비중		비중	누적 비중
• 1천만 이하	42,616	21.526	21.526	213,152	3.757	3.757
• 1.5천만 이하	25,046	12.651	34.178	316,175	5.572	9.329
• 2천만 이하	27,237	13.758	47.936	474,368	8.360	17.689
• 3천만 이하	38,328	19.360	67.296	942,718	16.614	34.303
• 4천만 이하	21,101	10.659	77.954	729,753	12.861	47.164
• 4.5천만 이하	6,933	3.502	81.456	293,588	5.174	52.338
• 5천만 이하	5,477	2.767	84.223	259,952	4.581	56.920
• 6천만 이하	9,195	4.645	88.868	504,838	8.897	65.817
• 8천만 이하	12,763	6.447	95.314	880,114	15.511	81.328
• 1억 이하	5,387	2.721	98.036	474,317	8.359	89.687
• 2억 이하	3,423	1.729	99.765	429,275	7.565	97.253
• 3억 이하	311	0.157	99.922	73,763	1.300	98.552
• 5억 이하	103	0.052	99.974	38,229	0.674	99.226
• 10억 이하	43	0.022	99.995	28,912	0.510	99.736
• 10억 초과	9	0.005	100.000	14,992	0.264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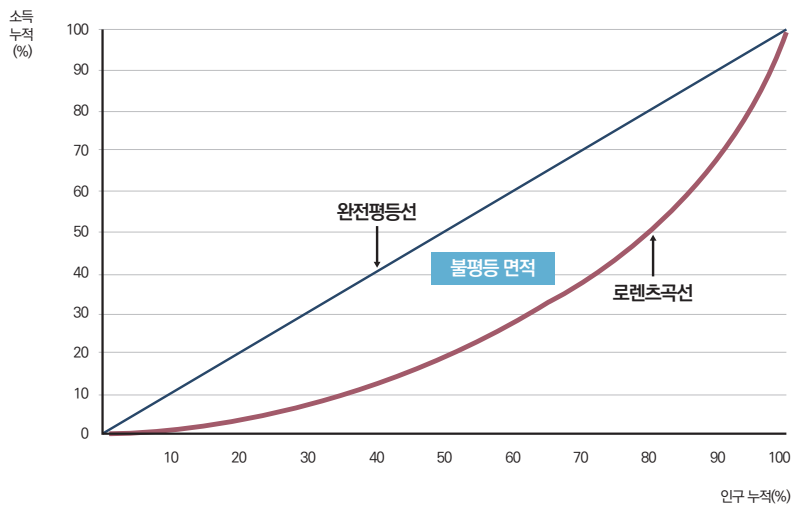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2017), 국세통계연보

■ 사·도별 지니계수의 산출(2016년) ■

구 분	지니계수	순위	구 분	지니계수	순위
• 전 국	0.4615	-			
1. 서울특별시	0.4993	17	9. 경기도	0.4589	16
2. 부산광역시	0.4531	12	10. 강원도	0.4326	3
3. 대구광역시	0.4470	9	11. 충청북도	0.4248	2
4. 인천광역시	0.4341	5	12. 충청남도	0.4367	6
5. 광주광역시	0.4551	15	13. 전라북도	0.4433	8
6. 대전광역시	0.4550	14	14. 전라남도	0.4534	13
7. 울산광역시	0.4507	11	15. 경상북도	0.4398	7
8. 세종특별자치시	0.4008	1	16. 경상남도	0.4328	4
			17. 제주특별자치도	0.4503	10

주 : 국세청(2017)의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 자료를 토대로 지니계수를 산출했으며, 순위는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된 정도에 대한 순위로서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로렌츠곡선(2016년) ■



주 : 국세청(2017)의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과세대상 근로소득(총급여액) 자료를 토대로 도식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삶』 분야의 유사 지표체계 비교 검토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소득	1인당 GNI	○
	1인당 GRDP	.	○	.	.	.	○	○
소비	1인당 소득	○
	가계 부채	○	○
	가계 자산	○	○
	가계부채 규모	○	.	○
	가계부채율	○	.	.	.	○
	가구평균 순자산	○	○
	가처분가구소득	.	.	.	○
	경제적 보유 충족감 : 만족도	○
	경제활동의 다양한 기회 : 만족도	○
	균등화 중위소득	○
	균등화 중위소비	○
	물가상승률	○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 만족도	○
	상대적 빈곤율	○
	생활물가지수	○	○
	소득 만족도 : 통계청 사회조사	○	.	.	.	○	.	.	.	○	.	○
	소득 만족도 : 시·도 사회지표	.	.	○	○
	소득수준 : 만족도	○
	소득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
	소비 수준 : 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	○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	○
	실질임금 총액	○	.	.	.
	우리집 생활비용의 적절성 : 만족도	○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 만족도	○
	월평균 가구소득 → 연 가구소득	○	.	○
	월평균 근로소득 → 연 가구소득	○	.	○
	월평균 생활비 → 소비자물가지수	○	.	○
	유통시설 개수	.	○	○
	재정자립도	○	○	○
	재정자주도	.	○	○
	저임금근로자비율	○
	전통시장, 집 인근 쇼핑시설 : 만족도	○
	주관적 소득수준	○	.	.	.	○	.	○
	지니계수	○
	지역 주민소득 평균 : 만족도	○
	평균소득 : 월평균 소득	.	.	○	○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주 거	1인당 주거면적	○	○	○
	노후주택비율	.	○	○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 평균분양가격)	○	○
	부적합 시설로부터 주거환경 쾌적도 : 만족도	○
	소득 대비 주택임대비	.	.	.	○
	우리 지역 주거 비용의 적절성 : 만족도	○
	임대주택건설실적	○	○
	주거 안정감 : 행복감	○
	주거만족도 → 주택만족도	○	.
	주거비 : 가계수입에서 주택관련비용 비율	.	.	○
	주거비용 : 주택가격/가구당 연소득	○
	주거환경 만족도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
	주거환경 만족도 : 시·도 사회지표	.	.	.	○
	주택(주거환경) 만족	○
	주택(주거환경) 만족도	○	.	.	.
	주택가격 상승률	○	○
	주택가격 :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	.	○
	주택보급률	○	.	○	.	.	○	○
	주택시세 적절성 → 주택가격 상승률	○	.	○
	주택전세가격 지수	○	.	.	○
	지가변동률	.	○	.	.	○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
	통근/통학소요시간	○	○
문화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
.	1인당 장서 수	○	○	.	.	.
여가	공공도서관 좌석 수	.	○	.	.	○	○
	공공체육시설 수	○	.	.	.	○
	공연장 수	○	○
	국내·외 관광	○
	국내관광여행 여부	○	.	.	○
	레저시설 이용 여부	○	.	.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	.	.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횟수	○	.	○
	문화기반시설 수	.	○	○
	문화기반시설 수 : 인구 만 명당	○	○
	문화생활 및 여가 : 행복감	○	.	.	.
	문화생활 참여정도	.	.	○
	문화시설(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 만족도	○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문화여가 지출 비율	○	.	.	○
문화여가비용	○	.	○
문화여가시간	.	.	.	○
문화여가시설 개수 →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	.	○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문화예술공간 이용률	○	.	○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	.	.	○	○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	.	.	○
문화예술 시설 수	○
문화유적, 공연, 축제 충분 : 만족도	○
문화환경 만족도	.	.	○
미술관 수	○	○
박물관 수	○	○
수면시간	.	.	○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
여가활동 횟수(여가활동빈도)	○	.	○
여가활용 만족도	○	○
예술행사 만족도 → 십만 명당 문화·공연예술 횟수	○	.	○
예술활동 참여도	.	.	○
인터넷접근능력만족도	.	.	.	○
일과 여가의 균형정도	.	.	○
지역 문화자원 인지도 : 만족도	○	.	.	.
지역 자원활용 여부 : 만족도	○	.	.	.
지역문화 여가 생활 향유 : 만족도	○
지역자원(시설) 변화 만족도	○	.	.	.
지정 등록 문화재 수	○	○
체육시설 수	○	○
체육시설 : 만족도	○
충북 문화·여가·관광 여건 : 만족도	○
평균 여가 시간	○	○
해외여행 경험 및 여부	○

주 : ¹ 영역별 세부지표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
² 음영으로 표시한 세부지표는 시·도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내에서 행복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지표에 해당
³ 지표의 이름이 같더라도 산정 방법이 다른 경우, 이들 경우의 수만큼 세부지표를 복수 표기
⁴ 지표의 이름만으로 성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한하여 쌍점(·) 다음에 구별되는 특징을 간단히 설명
⁵ 대리지표를 사용하는 세부지표의 경우, 화살표(→) 다음에 대리지표를 표기
⁶ 상단 제목줄에서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a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b 지역발전위원회, 주민행복도 지표 ^c 서울형 행복지표 ^d 대전형 행복지표 ^e 세종 행복지표
^f 강원 행복지수 ^g 충청북도민 행복지수 ^h 충남도민 행복지표 ⁱ 전북형 행복지표 ^j 제주 행복지표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 ‘환경’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녹지 환경 체감도’, ‘대기 환경 체감도’, ‘수질 환경 체감도’ 등을 선정
 - ‘녹지·대기·수질 환경 체감도’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음
- ‘공동체’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단체 참여율’, ‘사회적 관계망’, ‘10만 명당 자살률’ 등을 선정
 - ‘단체 참여율’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결합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보여주며, 최근 공동체적 삶의 기초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융성의 기초로 보고 있음
 -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사회적 자본의 중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유무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자살 자체는 개인적 현상이지만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 정도를 보여주며, 특히 사회적인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 옆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일반적으로 자살은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자살률’은 한 사회의 통합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음
- ‘주민참여’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청렴도’, ‘투표율’ 등을 선정
 - 자원봉사가 활발하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도 활성화되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사회의 질 측정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
 - * Thoits & Hewitt(2001)는 자원봉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 조사한 결과 행복과 자원봉사 간 상호 선순환적 관계가 있음을 설명
 - * Helliwell & Putnam(2004)은 매달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것이 행복을 향상하는 데 소득이 두 배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음을 밝혀냄
 - * 남은영 등(2012)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며 사회적 참여와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관계형 여가에 참여할 때 행복감이 높아지고 특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때 행복감의 향상이 유의미하다는 점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

- ‘청렴도’는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직결되며,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시민의 정치참여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투표율’ 지표는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반영

*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분야의 유사 지표체계 비교 검토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환경 1인당 공원 및 녹지조성 면적	○	○	.	.	○
1인당 임목 축적량	○	○
1인당 도시공원면적	○	○
1일 폐수발생량	.	○	○
CO	.	○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Nox	.	○	○
Sox	.	○	○
건강위험 : 만족도	○	.	.	.
공원, 오픈스페이스 : 만족도	○
공원 : 1인당 공원면적	.	.	○	○
공원조성 면적 → 천 명당 도시공원조성 면적	○	○
기후변화 불안도	○	○
대기 및 수질오염	○
도시공원 조성면적(인구 천 명당)	○	○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	○
미세먼지농도	○	.	.	○
산림면적	○	○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청결상태 : 만족도	○
생활폐기물 처리율(관리제외지역 지정율)	○	.	.	○
수질만족도	○	.	.	.
수질오염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	.	○
아황산가스	○	○
에너지 빈곤층 비율	○
온실가스배출량	.	.	.	○
이산화질소	○	○
주변 청결상태 : 만족도	○	.	.	.
지역의 경관 : 만족도	○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지역의 청결성 : 만족도	○
천명당 공원면적	.	○	○
체감환경만족도: 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녹지환경	○	○
체감환경만족도 : 지역환경 개선 정도	.	.	.	○	○
충북의 환경 여건 : 만족도	○
폐기물 및 쓰레기 배출량	○
폐기물 재활용률	○	○	○
하천수질(보통 등급 이하 비율)	○	.	.	○
현재 체감환경(%-좋은)	○	.	○
현재 체감환경(대기)	○	○
현재 체감환경(수질)	○	○
호소수질(보통 등급 이하 비율)	○	.	.	.
환경문제 인식	○	.	○
환경오염 : 미세먼지 농도	.	.	○
환경오염관련 질환 발생율	○	.	.	.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의 건강상 위협 가능성	○
공동체 가까운 친구 수	○	.	.	.
계층 인식	○	.	○
계층 이동 가능성	.	.	○
계층 이동성	○	.	○
공동체 인식 : 지역에 대한 소속감	.	.	○
사회 생활 : 행복감	○
사회단체참여율	○	○
사회적 관계망 : 통계청 사회조사	○	○	.	○
사회적 관계망 : 시·도 사회지표	.	.	.	○
사회적 관계유지 : 만족도	○	.	.	.
사회적 신뢰 : 만족도	○	.	.
사회적 신뢰도 : 시·도 사회지표	.	.	.	○
사회적 약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도	.	.	○
사회적유대:편안한사람들과식사를함께하는시간	.	.	○
연결망 : 의지할 수 있는 친구·지인 있는지 여부	.	.	○
이웃 신뢰 : 이웃 신뢰도	.	.	○
이웃과의 관계 : 만족도	○
자살률	○	○	○	○	.	○	○
자살충동 정도 → 십만 명당 자살률	○	.	○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 행복감	○
지역민의 정체감 → 도민으로서의 자부심	○	.	.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지역사회 소속감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
지역사회 소속감 : 한국종합사회조사	.	.	.	○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	.	.	.
친구 및 동료관계 만족도	○
친구관계 만족도	○	.	○
친구와 동료 관계 : 만족도	○
주민 참여	공공 신뢰 : 공공기관의 신뢰도	.	.	○
	기관신뢰 : 주요 사회기관 신뢰정도	○
	기부정도 : 기부액 정도	.	.	.	○
	대인신뢰	○
	도정 신뢰인식 : 만족도	○	.	.
	도정 운영 만족도	○	.	.
	도정 참여 영향 인식 : 만족도	○	.	.
	부패인식지수	○
	사회 공헌도 : 행복감	○	.	.
	사회단체 참여율	.	.	.	○	.	.	.	○	○	.
	시민권 보장에 대한 인식도	.	.	.	○
	시민사회단체 신뢰 : 만족도	○	.	.
	시민의식	○
	시민참여율	.	○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	○	.	.	.	○	.	○	.
	자원봉사자 비율	○	.	.	.
	자원봉사참여시간	.	.	.	○
	정보공개율	○	○	.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
	종교단체 신뢰 : 만족도	○	.	.
주요정책인지도 : 만족도	○	.	
지역사회 참여여건 만족도	○	.	.	
청렴도	○	.	
축제 방문 경험	○	
충북도정의 주민 소통 : 만족도	○	.	
투표율	○	○	○	○	○	.	
행정기관 신뢰 : 만족도	○	.	

주 : ¹ 영역별 세부지표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
² 음영으로 표시한 세부지표는 시·도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내에서 행복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지표에 해당
³ 지표의 이름이 같더라도 산정 방법이 다른 경우, 이들 경우의 수만큼 세부지표를 복수 표기
⁴ 지표의 이름만으로 성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한하여 쌍점(:) 다음에 구별되는 특징을 간단히 설명
⁵ 대리지표를 사용하는 세부지표의 경우, 화살표(→) 다음에 대리지표를 표기
⁶ 상단 제목줄에서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⁷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⁸ 지역발전위원회, 주민행복도 지표 ⁹ 서울형 행복지표 ¹⁰ 대전형 행복지표 ¹¹ 세종 행복지표
¹² 강원 행복지수 ¹³ 충청북도민 행복지수 ¹⁴ 충남도민 행복지표 ¹⁵ 전북형 행복지표 ¹⁶ 제주 행복지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 ‘안전’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1천 명당 범죄 발생률’, ‘안전 체감도’,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등을 선정
 - ‘범죄 발생률’은 안전 영역을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이 좋은 삶이고 안전한 사회라 말할 수 있음
 - 개인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통해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음
 - ‘교통사고 발생률’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유족들에게 큰 슬픔과 상처를 안겨줌
- ‘의료·복지’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회보장제도 체감도’, ‘의료 서비스 체감도’ 등을 선정
 - 건강상태는 전통적으로 기대수명이나 유병률과 같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의학적 진단 여부와는 별개로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음
 - * 고혈압으로 투약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원만히 하면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특별히 아픈 곳이 없더라도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낮게 평가할 수도 있음
 - 진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지리적·시간적 등의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과 함께 건강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미충족의료율’을 선정
 - * 중앙 및 사도의 유사지표 목록에 없음에도 새롭게 추가하여 선정한 지표에 해당
 - 사회보장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여건이 3년 전에 좋아졌는지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체감도’ 지표를 선정
- ‘교통·인프라’ 영역에서는 세부지표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등을 선정

- 일상에서 적지 않은 시간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이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부문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서울과 대전의 행복지표에 ‘대중교통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체 조사에 해당해, 본 조사에서는 17개 시도와의 비교가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자료로 활용
-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상수도 보급률’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급수시설이 정비된 지역 내에 거주하여 수도물을 공급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하수도 보급률’은 오염에 의한 부하를 줄이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공중위생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음

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분야의 유사 지표체계 검토 Ⅰ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안전											
강력범죄 발생률	○	○
거주지역 치안수준 : 만족도	○
경찰의 사건대응 : 만족도	○
경찰의 순찰활동 : 만족도	○
교통사고 발생 건수 : 도로교통공단	.	○	○	.	.	.	○
교통사고 발생률 :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
교통사고 발생률 → 교통사고 발생 건수 : 시·도 사회지표	.	.	.	○
교통사고 발생현황	○	○
교통사고(사망자수+부상자수)	.	○	○
교통안전 환경 : 만족도	○
내 집의 범죄로부터 안전 : 만족도	○
대중교통 이용 시 치안환경 : 만족도	○
도로사망률	○	○
방범시설 수준 : 만족도	○
범죄발생 건수 : KOSIS	○	○	.	○
범죄발생 건수 → 검거율 : 경찰청 범죄발생및검거현황	○	○
범죄율 → 범죄발생 건수 : 시·도 사회지표	.	.	.	○	○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안전성 : 만족도	○	.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 통계청 사회조사	.	.	.	○	○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 통계청 사회조사	○	○
사회적 재해로부터의 안전 : 만족도	○
산업재해율	○
살인율 : 10만 명당 살인 건수	.	.	○
생활안전도 : (범죄율+화재발생률+교통사고 발생률)÷3	○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사회보장 만족도 → 사회보장제도 여건변화	○	.	○
사회복지시설 수 →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	○	○	.	○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
수술종류별 수술현황	○	○
스트레스 수준 : 만족도	○	.	.
스트레스 인식정도 : 통계청 사회조사	○	○	.	○
스트레스인식도 : 시·도 사회지표	.	.	.	○
어린이집 현황	○	○
여성복지시설 : 만족도	○
연금수급률	.	.	.	○
유병률	○	○
유아보육시설 수	○	○
육아보육시설 : 만족도	○
음주량·흡연량 : 통계청 사회조사	○	.	○
음주율 및 흡연율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
음주율 : 통계청 사회조사	○	.	.	○
의료비 본인부담률	○	.	.
의료서비스 만족도(종합병원)	○	○	.	○
의료서비스 이용률	○	○	.	○
의료서비스 접근성 만족도	○	.	.	.
의료서비스 질 만족도	○	.	.	.
의료시설 수 → 천 명당 의료기관 병상 수	○	.	○
의료시설 수	.	○	○
의료인력 수	○	○
의료인수	.	○	○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	.	.	○
인구 천 명당 의사수 혹은 병상수	○	.	.	.	○
장애인 복지시설수	.	○	○
장애인복지시설 : 만족도	○
정신건강 : 스트레스 정도	.	.	○
주관적 건강만족도 : 시·도 사회지표	.	.	.	○
주관적 건강상태	.	.	○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
주관적건강평가 : 통계청 사회조사	○	○
주관적인 건강 수준 : 만족도	○
주요 만성질환 사망률	○	○	.	.	.
지역 내 병원의 신뢰성 : 만족도	○
지역 내 병원의 종류와 수 : 만족도	○
지역 내 보건소의 신뢰성 : 만족도	○
지역공중보건(보건소, 지방의료원) : 만족도	○
직장어린이집 현황	○	○
청소년복지시설 : 만족도	○

영역별 세부지표	중앙 및 시·도의 유사 지표체계										시·도 간 비교 가능성
	a	b	c	d	e	f	g	h	i	j	
출생시 기대수명	○	.	.	○
편의 및 보호시설 : 만족도	○
평균수명 → 기대여명	○	○
흡연률과 음주량	○	.	.	.	○
흡연율 : 통계청 사회조사	○	.	.	○
교통	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 만족도										
인프라	대중교통 접근성 → 대중교통접근시간										
	대중교통과 주차시설 만족										
	대중교통만족도										
	대중교통이용만족도 : 시·도 사회지표										
	도로밀도										
	도로보급률										
	도로포장률										
	도시가스 보급률										
	버스 이용 편의성 : 만족도										
	보행환경 : 만족도										
	상·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										
	승용차 이용 편의성 : 만족도										
	주차환경 : 만족도										
	통근시간(승용차, 버스) 만족										
	하수도 보급률										

주 : ¹영역별 세부지표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

²음영으로 표시한 세부지표는 시·도 간 비교 가능한 지표 내에서 행복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지표에 해당

³지표의 이름이 같더라도 산정 방법이 다른 경우, 이들 경우의 수만큼 세부지표를 반복 표기

⁴지표의 이름만으로 성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에 한하여 쌍점(:) 다음에 구별되는 특징을 간단히 설명

⁵대리지표를 사용하는 세부지표의 경우, 화살표(→) 다음에 대리지표를 표기

⁶상단 제목줄에서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지표체계는 다음과 같음

^a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b지역발전위원회, 주민행복도 지표 ^c서울형 행복지표 ^d대전형 행복지표 ^e세종 행복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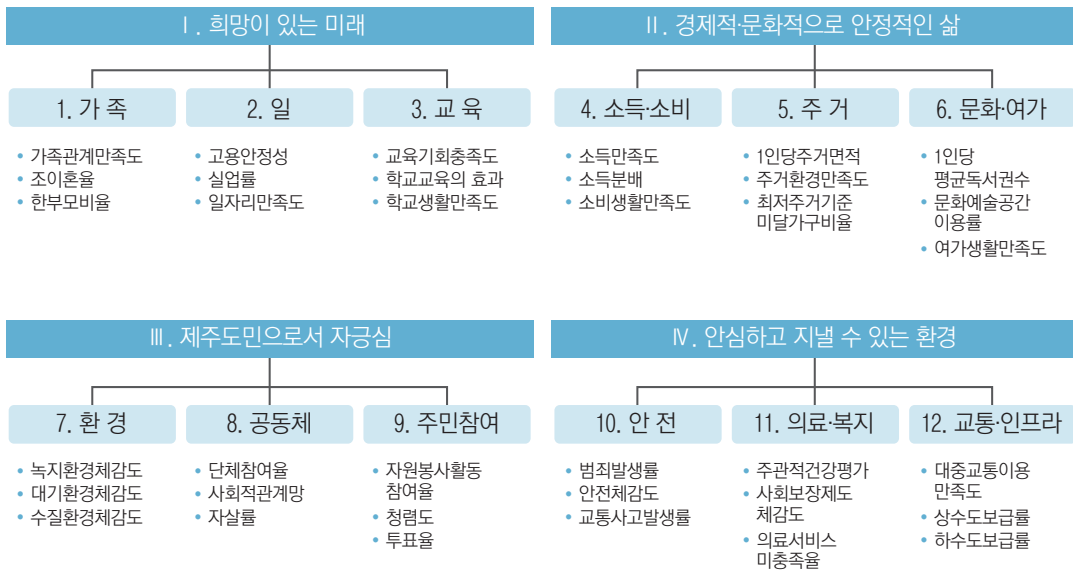
^f강원 행복지수 ^g충청북도민 행복지수 ^h충남도민 행복지표 ⁱ전북형 행복지표 ^j제주 행복지표

3. 제주형 도민행복지표의 최종안

행복지표의 구성 체계

- 최종안으로 제안하는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체계는 4대 분야, 12개 영역, 36개 세부지표로 구성
 - 우선 행복지표를 구성하는 체계로 12개의 영역을 추출하고, 이들 영역을 행복의 요인으로 설정한 4대 분야에 분류한 후에 영역별로 3개의 세부지표를 선정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의 구성 체계 ■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의 지표 설명 및 자료원

4대 분야 및 12개 영역별 36개 세부지표(방향, 단위)	지표 설명	자료 원
1. 희망이 있는 미래		
①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관계 만족도(+, %) 조이혼율(-, %) 한부모 비율(-, %)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②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 안정성(+, %) 실업률(-, %) 일자리 만족도(+, %)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③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회의 총족도(+, %) 학교교육의 효과(+, %) 학교생활 만족도(+, %)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2.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 생활		
④ 소득·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만족도(+, %) 소득 분배(지니계수, -, %) 소비생활 만족도(+, %) 	통계청, 사회조사 국제통계, 국제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⑤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주거면적(+, m²/인) 주거환경 만족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⑥ 문화·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평균 독서 권수(+, 권/인) 문화예술험활공간 이용률(+, %) 여가생활 만족도(+, %) 	통계청, 사회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4대 분야 및 12개 영역별 36개 세부지표(방향, 단위)	지표 설명	자료 원
3.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⑦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환경 체감도(+, %) • 대기 환경 체감도(+, %) • 수질 환경 체감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⑧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참여율(+, %) • 사회적 관계망(+, %) • 10만 명당 자살률(-, 명/1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⑨ 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 청렴도(+, 점) • 투표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기활동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청렴도추진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4.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 명당 범죄 발생률(-, 건/1천 명) • 안전 체감도(+, %) • 자동차전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건/천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범죄통계 • 통계청, 사회조사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대수
⑪ 의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 %) • 사회보장제도 체감도(+, %) • 의료 서비스 미충족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⑫ 교통·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점) • 상수도 보급률(+, %) • 하수도 보급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 환경부, 상수도통계 • 환경부, 하수도통계

도 차원의 행복도조사 병행 실시

- 12개 영역별로 해당 분야와 관련한 만족도 조사를 주민 대상으로 설문
 - 가장 낮은 수준 0점부터 가장 높은 수준 10점까지 11점으로 척도를 구성해 설문조사
 - * 행복도조사에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설문도 포함하여 12개 각 영역과의 상관분석 실시
 - 도내 지역을 구분하여 인구 비례 할당 방식으로 설문 실시
 -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고정총합척도법, 즉 고정된 총합 점수(100점)를 주고 이를 평가 대상인 4개의 분야에 할당하도록 하는 방식의 중요도 설문을 실시
 - * 일본 구마모토현의 AKH 지수의 경우 총합을 10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 점수를 4개 행복요인에 할당할 때 경우의 수가 8가지에 불과하다는 약점이 있어(김도형, 2016: 154),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설문에서는 총합을 100점으로 설정
 - * 고정된 총합의 100점 설정은 행복 전체를 100점이라 가정했을 때 분야별로 중요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점수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설문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령 설문 응답자가 첫 번째 추진전략인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에 30점을 주었다면 나머지 70점은 다른 3개의 분야에 할당하는 방식
 - 4대 분야별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해 도내 지역별로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형 행복도 지수화를 시도한다면 점수의 산출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음
 - ① 먼저 1단계에서는 12개 영역별 만족도에 대해 4대 분야별로 총평균을 산출
 - ② 2단계에서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4개 분야의 중요도에 대해 분야별로 평균을 산출
 - * 총합을 100점으로 고정하여 4대 분야별로 점수를 할당했으므로 전략별 평균을 합산해도 100점이 됨
 - ③ 3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 값과 2단계에서 산출한 값을 4개 분야별로 각각 곱함
 - * 4대 분야의 중요도는 결국 지수를 산출하는 데 가중치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
 - ④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산출한 값을 합산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 3단계에서 산출된 값을 합산할 때의 만점은 3,000점이 되므로 이 합계에 30을 나누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이 값을 제주형 도민행복지수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영역별 설문 문항 ■

4대 분야별 영역	설문 문항
1. 희망이 있는 미래	가 족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이 가족에게 미래의 꿈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이 일에 대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 육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에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삶	소득·소비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소득을 얻으며 불편함 없이 소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 거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주거환경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문화·여가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문화와 여가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3.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환 경 • 귀하께서는 제주도의 청정한 환경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공동체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어려울 때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 • 귀하께서는 제주도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4.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안 전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이 재해 또는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료·복지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인프라 • 귀하께서는 거주하는 지역에서 교통·인프라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V) 도민행복지표의 도정연계방안

1. 행복정책의 기본방향

내재적 선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반영한 행복정책의 추진

- 도 차원에서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선행되어야 함
 - 오늘날 여러 정책과 제도에 ‘주민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의 모든 서비스와 정책이 주민행복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음
 -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주민행복과 무관한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국민행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 기존 정책과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김병섭 등, 2015b: 98)
- 행복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경제성장과 경쟁을 조장하는 환경이 더 이상 행복을 위한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공동체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행복지표의 개발

- 향후 제주형 행복지표를 발전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은 도민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향
 -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하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 주체로서 도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구마모토현은 행복지수연구회를 운영해 지역에 적합한 행복지표를 개발했고, 전라북도도 300여 명의 도민 참여 과정을 거쳐 행복지표를 선정

*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복조례를 만들어 발의하고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김영종, 2018; 오지은, 2017: 3-6)

- 도민이 참여하는 행복지표의 개발을 통해 도민이 우선시하는 행복의 가치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
 -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복 정책을 수립해가는 데 의미가 있음
 - 행복지표는 도민들의 삶과 가치관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

도정의 정책과 연계된 행복도 조사의 실시

- 도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해 지역별 또는 연령별 단위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
 - 해마다 행복도 조사를 실시한다면 자료가 축적되어 도민의 행복한 삶에 대해 전반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행복도 조사의 결과가 축적된 자료는 도민들의 행복도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도민의 행복지표를 도정의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도민의 행복도가 낮게 나타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 분야의 정책 개발을 위해 행복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주민의 행복을 도정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도가 추진하는 행복정책은 도에서 수립한 각종 계획들과 연동·집행할 필요가 있음
- * 구마모토현은 가바시마 지사가 취임했던 2008년에 <구마모토의 꿈 4개년 전략>을, 두 번째 현정이 출범한 2012년에는 <행복체감 구마모토 4개년 전략>을, 그리고 3선으로 당선된 2016년에는 <구마모토현 복구부흥 4개년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들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개별 계획과 일체가 되어 행복정책의 현정 추진

- 행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조직해 도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추진
 -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행복도 조사 수행기관도 함께 지정
- * 일본에서 기초급 지자체에 해당하는 도쿄도의 아라카와구는 해마다 행복도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을 위해 2009년 아라카와구 자치종합연구소를 설립

도민행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로서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 행복정책의 추진 조직, 행복도 조사 실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
 - 시·도 단위에서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자치행정을 실현
 - 행복지표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각 부문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후 그 성과를 주민행복도의 증진 정도로 평가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없음
- * 2018년 11월 현재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경기 광주시, 충북 증평군, 전남 순천시, 경남 의령군 등 모두 6개인 것으로 파악

2. 행복정책 연계방안 : 도민행복지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희망이 있는 미래

- 가족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
- 오늘날 가정 공동체의 붕괴 및 해체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도민 행복의 원천이자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유지·강화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많은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가족 구성원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며,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됨
-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의 기본 단위는 가족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 맞춤형 가족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
 -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생활 등을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5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
- 일자리 영역의 경우 도민들이 실업으로 인한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좋은 수준의 일자리를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
 - 취업 문제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취업 박람회 개최하고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
- 교육의 영역에서는 학교 학생들의 인성과 건강 등 행복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 중요한 활동에 해당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지원 체계를 강화
 -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실효성이 부족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이 요구되며 학교와 학부모의 참여 의지도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경제적·문화적으로 안정적인 삶

- 행복은 경제적·문화적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때 달성
 - 기본적인 삶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최저의 생활이 충족된 상황에서 최적의 삶을 누리는 개념으로 이해
- 행복은 개인의 삶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며, 문화적 삶을 즐기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여가 분야의 정책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음
 - 문화와 예술은 여가를 누리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공동체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주거환경은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살아가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 방법을 마련

제주도민으로서 자긍심

- 제주도가 보유한 청정한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존하여 이를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
-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강구
 - 공동체와 인간관계는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개인의 삶을 공유하고 기쁨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게 키워내는 것으로 행복정책을 접근할 수 있음
 - 도민들이 생활하는 실제적인 삶의 공간인 마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가꾸어가는 정책, 이웃 간 관계를 좋게 맺도록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
- 도민으로서 도정 참여에 대한 자유가 보장될수록 도민들의 행복도는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배경에서 도민들이 도정의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 도민들이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자원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도민으로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과 마을 문제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

-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라 기본적인 삶인 의식주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면 그 다음은 안전의 보장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의료 및 복지체계를 촘촘히 연결하고 지원을 강화해나가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 마련이 필요
- 도민의 건강은 행복도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도민들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확대하고 건강 및 보건교육을 강화

참고자료

- 강창민·서인석·윤원수, 2017, <제주특별자치도 행복지수 평가연구>, 제주연구원.
- 고승희·이상진·오용준·김양중·김종수·장창석·신혜지·장수명·이윤석·송정기·이희길, 2012, <충남도민의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도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충남발전연구원.
- 고승희·홍성호·이상진·오용준·이종윤·신혜지·이희길, 2013, <충남 도민의 행복지표 측정과 정책연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구재선·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 권영섭, 2013, <저성장시대 행복한 지역발전의 조건과 지표개발 연구>, 국토연구원.
- 김도형, 2015,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현으로 만들기: 구마모토현”, <지역과 발전>, 22: 56-60,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_____, 2016, “일본 지자체의 행복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행복도 지표 개발 및 측정: 도쿄도 아라카와구와 구마모토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3): 133-177.
- 김동영·이종섭·송용호·김윤주, 2017,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 방안>, 전북연구원.
- 김미영, 2009, “공동체와 행복: ‘실천’과 공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307-317.
- 김병섭·강혜진·김현정, 2015a, “지방정부서비스가 주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주거영역 삶의 질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3): 29-56.
- 김병섭·최성주·최은미, 2015b,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 김영종, 2018, “행복을 정책으로: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기념 및 2018 수정시정연구원 국제심포지움>, 10.17.
- 김윤태, 2009, “행복지수와 사회학적 접근법: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75-90.
- 남은영·이재열·김민혜, 2012, “행복감, 사회자본, 여가: 관계형 여가와 자원봉사활동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6(5): 1-33.
- 노지혜·이민규, 2011,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1): 159-183.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3, <지역행복도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 _____, 2015, <2015년 지역생활권 지표 구축 및 주민행복도 조사>.
- _____, 2016, <2016년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 박노동·박재목·류진석·김정은, 2016, <대전형 행복지수 구축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박승규·김선기·조창덕, 2015,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변미라·민보경·박민진, 2017, <서울형 행복지표 구축과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 변미라·최정원·박민진·이혁준, 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 신민희·구재선, 2010, “행복과 창의력의 관계: 행복한 사람이 더 창의적이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37-51.
- 신지은·최혜원·서은국·구재선, 2013, “행복한 청소년은 좋은 시민이 되는가?: 긍정 정서와 친사회적 가치관 및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3): 1-21.
- 연합뉴스, 2018, “지자체 홍보캐릭터의 '힘'... '구마몬' 관련 매출 1조4천억원”, 3.20.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오지은, 2017, “행복, 시민의 목소리로 불륨을 높여라: 시민주권시대 행복지표 다시보기”, 《희망이슈》, 35, 희망제작소.
- 이정전, 2008, 《우리는 행복한가》, 한길사.
- 이종수, 2018, “공동체의 형성이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동네효과(Community Effect)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201-219.
- 제주특별자치도, 2016,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 향한 제주의 전략》.
- _____, 2017, 《2017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 _____, 2018a, 《세계의 보물섬 청정공존 제주》.
- _____, 2018b, 《행복제주 플랜(PLAN): 도정 주요업무보고》.
- 최영근·김태윤·박원배·신동일·고봉현·윤원수, 2018,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조사(II)》, 제주연구원.
- 최용환·김양식·정삼철·변혜선·배민기·김현기·조찬주, 2015, 《도민행복의 재발견: 행복지수 연구》, 충북발전연구원.
- 통계청, 2013, 《지역사회지표 작성 매뉴얼》.
- _____, 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 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 _____, 2017, 《2017년 사회조사보고서: 복지·사회참여·문화와 여가·소득과 소비·노동》.
- _____, 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 황규선, 2012, 《강원도 행복지수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_____, 2014,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한 도민 행복 증진 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熊本学園大学, 2012, 《県民幸福量を測る指標の作成に係る調査研究報告書》.
- 熊本幸福量研究会, 2011, 《県民幸福量を測る指標についての意見書》.
- 熊本県, 2009, 《くまもとの夢4力年戦略(2008-2011)》.
- _____, 2012a, 《幸せ実感くまもと4力年戦略(2012-2015)》.
- _____, 2012b, 《幸せ実感くまもと4力年戦略委員会設置要綱》.
- _____, 2013a, 《平成24年度県民の幸福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_____, 2013b, 《平成25年度県民の幸福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_____, 2014, 《平成26年度県民の幸福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_____, 2015, 《平成27年度県民の幸福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_____, 2016, 《熊本復旧・復興4力年戦略(2016-2019)》.
- _____, 2017, 《平成29年度県民の幸福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_____, 2018a, 《平成30年度県民の幸福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_____, 2018b, 《平成30年度県民総幸福量(AKH)に関する調査結果について》.
- 熊本県企画振興部, 2012, 《第1回 幸せ実感くまもと4力年戦略委員会議事録》.
- 蒲島郁夫, 2008, 《逆境の中にこそ夢がある》, 東京: 講談社.
- ラミス, C. ダグラス, 2000, 《經濟成長がなければ私たちは豊かになれないのだろうか》, 東京: 平凡社.
- 김종철·최성현(역), 2011,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 Ben-Shahar, T., 2014, *Choose the Life You Want: The Mindful Way to Happiness*, New York, NY: The Experiment.
- Bok, D., 2010, *The Politics of Happiness: What Government Can Learn from the New Research on Well-Be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추홍희(역), 2011,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지안출판사.
- Brickman, P. & Campbell, D. T., 1971, "Hedonic Relativism and Planning the Good Society", In Appley, M. H.(ed.), *Adaptation-Level Theory: A Symposium*, 287-302, New York, NY: Academic Press.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8, *Happiness: Unlocking the Mysteries of Psychological Wealth*, Malden, MA: Wiley-Blackwell; 오혜경(역), 2009,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 21세기북스.
- Duncan, G., 2013, "Happiness, Sadness and Government", *Health, Culture and Society*, 5(1): 51-66.
- Dunn, E. W., Aknin, L. B. & Norton, M. I., 2008, "Spending Money on Others Promotes Happiness", *Science*, 319(5870): 1687-1688.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389.
- Forehand, R., Armistead, L. & David, C., 1997, "Is Adolescent Adjustment Following Parental Divorce a Function of Pre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2): 157-164.
- Frank, R. H., 1985, "The Demand for Unobservable and Other Nonpositional Good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5(1): 101-116.
- _____, 2010, *Luxury Fever: Money and Happiness in an Era of Exces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한(역), 2011, <사치열병: 과잉시대의 돈과 행복>, 미지북스.
- _____, 2011, *The Darwin Economy: Liberty, Competition, and the Common Goo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세민(역), 2012, <경쟁의 종말: 승자독식사회 그 후 미래의 경제 질서를 말한다>, 웅진지식하우스.
- Frank, R. H. & Cook, P. J., 1995, *The Winner-Take-All Society: Why the Few at the Top Get So Much More Than the Rest of Us*, New York, NY: The Free Press; 권영경(역), 2008, <승자독식사회>, 웅진지식하우스.
- Frey, B. S., 2008,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Cambridge, MA: The MIT Press; 유정식·홍훈·박종현(역), 2015, <행복, 경제학의 혁명: 행복 연구가 21세기 경제학의 지평을 바꾼다>, 부키.
- Frey, B. S. & Stutzer, A., 2001,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Human Well-Being*,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김민주(역), 2008, <경제학, 행복을 말한다: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 예문.
- _____, 2005, "Happiness Research: State and Prospects", *Review of Social Economy*, 62(2): 207-228.
- Gohm, C. L., Oishi, S., Darlington, J. & Diener, E., 1998, "Culture, Parental Conflict, Parental Marital Status,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of Young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319-334.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 1435-1446.

- Hollander, J. (2002). "Measuring community: Using sustainability indicators in Devens", Massachusetts. *Planners' Casebook*, 39(Winter): 1-7; 통계청(2013: 37)에서 재인용.
- Horn, W. F., 2006, "Marriage, Family, and the Welfare of Children: A Call for Action", In Moynihan, D. P., Smeeding, T. M. & Rainwater, L.(eds.), *The Future of the Family*, 181-194, New York, NY: Russel Sage Foundation.
- Isen, A. M., Daubman, K. A. & Nowicki, G. P., 1987, "Positive Affect Facilitates Creative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122-1131.
- Isen, A. M. & Levin, P. F., 1972, "Effect of Feeling Good on Helping: Cookies and Kin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3): 384-388.
- Kahneman, D. & Thaler, R. H., 2006, "Anomalies: Utility Maximization and Experienced Ut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1): 221-234.
- Lane, R. E., 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Market Democrac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Layard, R., 2006, "Happiness and Public Policy: A Challenge to the Profession", *The Economic Journal*, 116(510): C24-C33.
- _____,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The Penguin Press; 정은아(역), 2011, <행복의 함정: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들는가>, 북하이브.
- Loewenstein, G. & Ubel, P. A., 2008, "Hedonic Adaptation and the Role of Decision and Experience Utility in Public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2: 1795-1810.
- MacIntyre, A. C.,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이진우(역), 1997,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 Myers, D. G., 1992, *The Pursuit of Happiness: Who is Happy-And Why?*, New York, NY: William Morrow; 김영곤·오강남·이동렬(역), 2008, <주머니 속의 행복>, 시그마북스.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식(역), 2003, <정의론>, 서울: 이학사.
- Russek, L. G. & Schwartz, G. E., 1997, "Perceptions of Parental Caring Predict Health Status in MidLife: A 35-Year Follow-up of the Harvard Mastery of Stress Study", *Psychosomatic Medicine*, 59(2): 144-149.
- Sandel, M. J., 1982,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양수(역), 2012, <정의의 한계>, 멜론.
- Thoits, P. A. & Hewitt, L. N., 2001, "Volunteer Work and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 115-131.
- Vaillant, G. E., 2002,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the Landmark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New York, NY: Little, Brown and Company; 이덕남(역), 2010, <행복의 조건>, 프리티어.
- Veenhoven, R., 1999,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_____, 2010, "Greater Happiness for a Greater Number: Is that Possible and Desirab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 605-629.
- Wilson, J. Q., 2002, *The Marriage Problem: How Our Culture Has Weakened Families*, New York, NY: HarperCollins.
-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

